

박사학위논문

ESG 평가 모델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건설산업에 있어서 협력사 중심으로 -

2022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국 제 경 영 학 전 공

한 성 희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강명수

ESG 평가 모델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건설산업에 있어서 협력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SG evaluation model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국 제 경 영 학 전 공

한 성 희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강명수

ESG 평가 모델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건설산업에 있어서 협력사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SG evaluation model

위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국 제 경 영 학 전 공

한 성 희

한성희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기현 (인)

심 사 위 원 강 명수 (인)

심 사 위 원 이 정훈 (인)

심 사 위 원 김 병재 (인)

심 사 위 원 김 용진 (인)

국 문 초 록

ESG 평가 모델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 건설산업에 있어서 협력사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역 학 과
국 제 경 영 학 전 공
한 성 희

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ESG를 활용해 건설 산업 협력사 변화관리에 사용가능한 ‘ESG 관리지표’를 개발하고,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데, 최근 ESG 활동은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신속한 대응을 통해 ESG를 신성장 동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ESG 경영의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의 마련, 관리 지표의 개발과 실행, 성과 평가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제시하는 ESG 관리 지표를 중심으로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주로 글로벌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애플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제조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10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중소협력사들의 ESG 참여는 필수가 되고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도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점에서의 ESG 성과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ESG 평가지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슈와 국내,외 주요 건설사가 도출한 중대성(Materiality)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건설사의 공급망 관리에 사용되는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ESG 측면에서 건설산업 협력사 변화관리에 적합한 93개의 지표 Pool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지표 Pool을 적합성과 측정성의 관점에서 협력사 ESG 평가에 활용 가능한 지표로 만들기 위해 가용 Data 분석과 FGI를 통하여 총 50개의 협력사 ESG 관리지표를 제시하고, 우수협력사 4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했다.

평가결과, 47개사 평가대상 협력사 중 우수 및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1~5등급이 37개사로 78%를 차지하였으나, 평가대상이 우수협력사 임에도 불구하고 ESG 평가가 미흡한 6~7등급 업체도 22%(10개사)를 차지했다. E,S,G 각 부문별 평가 결과 평균 점수를 보면 G 부문이 62.9점, S 부문은 58.6점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E 부문은 37.0점으로 평가점수가 매우 저조하였으며, 6~7등급 업체가 79%를 차지해 환경분야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었다.

협력사 ESG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협력사의 ESG 경영관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시작으로 친환경·저탄소 건설 확산을 위한 설비투자과 신공법 적용을 높여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비용을 지원하고, 친환경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는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Incentive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 ESG 평가를 통한 관리체계는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원도급사에게는 건전한 협력사 육성과 운영으로 안전, 품질, 환경 관련 리스크가 낮아지고, 회계 투명성과 내부자금 유출 등 자금관리 체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및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데도 기여해 원도급사와 협력사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ESG 평가 지표가 600여 종에 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표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지표들을 분석에 포함시켜 협력사 ESG 평가에 활용 할 지표 Pool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ESG 중대 이슈 선정을 위해 국내,외 주요 건설사 10개사의 중대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나, 중대성 분석 결과는 사회적 이슈 변화에 따라 상시 변화해 가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 단기적인 경영상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기업들의 중대성 분석 결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중대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는 ESG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 지표를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향후 평가 수행시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합성과 측정성을 부여 받은 지표라 할지라도 피평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성 가능성이 충분한 동시에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해야만 ESG 평가 본연의 목적이 내실 있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기업들을 평가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이를 분석하여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가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건설산업의 협력사 ESG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리 지표는 협력사들의 ESG 경영 수준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ESG, 지속가능성, 공급망 관리, 건설산업, 협력사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1.3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5
2.1 ESG의 등장과 변천	5
2.2 건설산업과 지속가능성	21
2.3 성과관리지표 및 ESG	26
2.4 건설산업의 특성과 공급망 관리	34
III. 실증연구	51
3.1 주요 ESG 평가 지표	51
3.2 건설산업의 ESG 중대 이슈	60
3.3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 지표 도출	73
3.4 협력사 ESG 평가 지표의 활용	81
IV. 결 론	92
4.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92
4.2 연구 시사점	92
4.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93
참고문헌	95
ABSTRACT	101

표 목 차

〈표1〉 공급망 관리 (SCM)의 발전 방향	25
〈표2〉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과 현황	27
〈표3〉 주요 ESG 평가기관의 사업 분야	28
〈표4〉 주요 ESG 평가기관의 ESG관련 서비스	28
〈표5〉 글로벌 주요 평가기관의 ESG평가기준	29
〈표6〉 전후방연쇄효과(2015년 기준)	34
〈표7〉 건설단계별 주요 부조리 유형	42
〈표8〉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율 추이	44
〈표9〉 주요 건설사 공사 하도급 등록협력사 수	44
〈표10〉 전문건설업 내 중소기업 비중	44
〈표11〉 A사 협력사 평가 및 조치 결과	46
〈표12〉 P 건설 협력사 공사 하도급 평가체계	48
〈표13〉 DJSI 평가 주요 항목 및 비중	52
〈표14〉 GRI Topic Standards 구성 주요 항목	55
〈표15〉 SASB Standards(Engineering & Construction Services Sector)...	57
〈표16〉 ESG 평가 주요 이슈 및 항목.....	59
〈표17〉 중대성 평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 예시	61
〈표18〉 ESG 주요 이슈에 따른 국내,외 건설기업의 중대성 분석 결과 ...	72
〈표19〉 건설산업 ESG 중대 이슈별 평가 지표 Pool	73
〈표20〉 가용지표 현황	76
〈표21〉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 지표	80
〈표22〉 주요 13개 공종의 우수협력사 계약비중	82
〈표23〉 부도 및 중도 포기	82
〈표24〉 부정당 협력사 제재 현황	82

〈표25〉 수행도 평가 현황	82
〈표26〉 국내 주요 5개 건설사 중대성 평가 결과.....	83
〈표27〉 협력사 수행도 평가 모델 (ESG 항목 및 영역으로 치환)	84
〈표28〉 ESG 영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른 협력사 ESG 평가 결과	85
〈표29〉 E(환경) 분야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86
〈표30〉 S(사회) 분야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87
〈표31〉 G(지배구조) 분야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88
〈표32〉 ESG 평가등급 체계	89
〈표33〉 우수협력사 ESG 종합평가 결과	89
〈표34〉 우수협력사 ESG 평가 부문별 등급 분포	90

그 립 목 차

〈그림1〉 협력사 ESG 평가지표 개발 프로세스	3
〈그림2〉 빌딩과 건설부문 글로벌 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35
〈그림3〉 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37
〈그림4〉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현황 및 업종별 발생 현황	38
〈그림5〉 건설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39
〈그림6〉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40
〈그림7〉 건설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	41
〈그림8〉 DJSI Korea 평가 프로세스	52
〈그림9〉 MSCI ESG Rating Key Issue	53
〈그림10〉 MSCI ESG Rating 평가 등급	54
〈그림11〉 KCGS ESG 평가 모형	58
〈그림12〉 해외 건설기업 E사 중대성 평가 결과	62
〈그림13〉 해외 건설기업 F사 중대성 평가 결과	63
〈그림14〉 해외 건설기업 G사 중대성 평가 결과	64
〈그림15〉 해외 건설기업 H사 중대성 평가 결과	65
〈그림16〉 해외 건설기업 I사 중대성 평가 결과	66
〈그림17〉 국내 건설기업 J사 중대성 평가 결과	67
〈그림18〉 국내 건설기업 A사 중대성 평가 결과	68
〈그림19〉 국내 건설기업 B사 중대성 평가 결과	69
〈그림20〉 국내 건설기업 P사 중대성 평가 결과	70
〈그림21〉 국내 건설기업 C사 중대성 평가 결과	71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경제발전 과정에 있어 계층 간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ESG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박경서, 2021), 환경에서는 기후변화, 천연자원, 환경오염, 쓰레기, 기회와 정책 등의 주제가 다루어지고, 사회에서는 인적자본과 생산책임, 관계의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지배구조에서는 기업지배구조나 기업 형태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다(허가영, 2021). 이러한 ESG는 선도 금융회사 중심으로 ESG요인을 고려한 경영전략 활성화로 전세계 UN책임투자원칙(PRI) 서명기관도 3,634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글로벌 투자규모는 20년 6월말 기준으로 약 40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는데(금융위원회, 2021),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락 (BlackRock)의 CEO Larry Fink은 2021년 1월 투자자를 위한 연례 서한(Annual Letter)에서 기후 변화에 심각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김양민, 박지현, 2021).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ESG활동은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안태욱, 이희승, 이준서, 2021),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미 발 빠른 대응을 통해 ESG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삼정KPMG, 2021).

한편, 국내 건설사들도 ESG 전담조직 신설, 친환경 포트폴리오 및 기술 개발, ESG채권 발행 등 ESG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향후 건설산업 ESG 경영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4.1%가 '중요해질 것' (매우 중요해질 것+약간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업계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은

정, 2021). 특히, 건설산업은 기획 단계부터 설계·시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직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완성품을 창조하는 종합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하도급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각 공정별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심상경, 2014).

ESG에서는 공급망(Supply Chain)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기업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강제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KOTRA, 2021), 전세계적으로도 ESG 확산으로 인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내 건설업체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급망 평가 등 관리체계는 가지고 있으나, 재무적 관리에 집중되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대변되는 ESG와 연계한 관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건설산업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ESG 관리지표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문헌 고찰과 기존의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현황과 주요 글로벌ESG 평가지표, 건설산업의 ESG 중대이슈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한 탐색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1.2.1 국내외 주요 ESG 평가지표로부터 공통의 이슈와 평가항목 도출

주요 ESG 지표인 DJSI, MSCI ESG Score,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KCGS ESG 평가에 대해 각 기관들이 제시하는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 기준, 세부 지표를 분석하고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분야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주요 이슈와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1.2.2 건설산업의 ESG 중대 이슈 도출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개의 국내 건설기업과 DJSI와 MSCI ESG Rating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의 해외 건설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확보하여,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를 분석하여 공통의 중대성 이슈를 도출하고 각 이슈에 연계된 상세지표 Pool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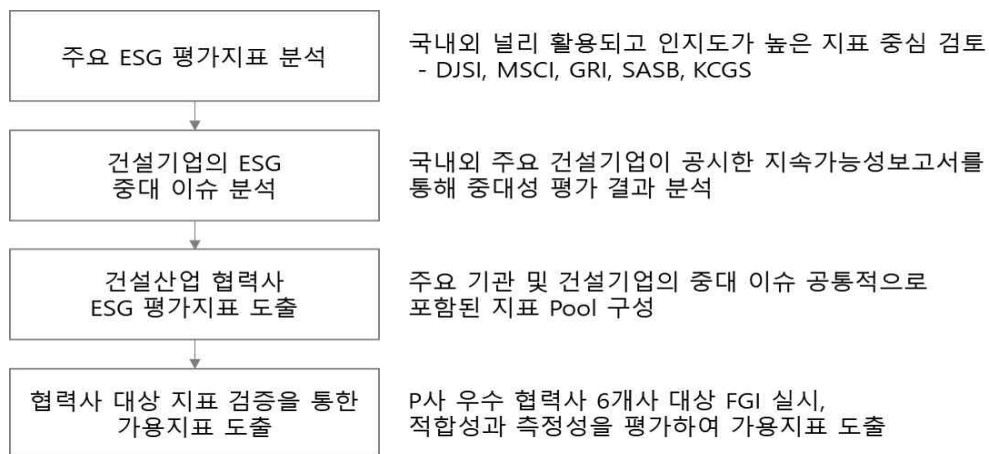
1.2.3 우수협력사 실무책임자 인터뷰(FGI)

P사의 우수협력사 실무책임자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ESG중대 이슈에서 도출한 상세지표가 적합성과 측정성의 관점에서 타당한지 확인하고 활용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인터뷰는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2일 사이에 P사 우수협력사 중 6개사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2.4 ESG 관리 지표 도출 후 협력사 대상 시범평가를 통해 활용방안 마련

적합성과 측정성이 확인된 ESG 상세지표의 시범적용을 위해 우수협력사 47개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간담회를 가졌고, 2021년 9월에 총 4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림1〉 협력사 ESG 평가지표 개발 프로세스



1.3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국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협력사 변화 관리에 어떤 ESG 관리지표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며, ESG 관리지표 도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질문 한다.

- 국내,외 주요 ESG 평가지표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 현재 국내 건설사의 공급망 관리에 사용되는 평가지표는 무엇인가?
- 국내,외 주요 건설사가 도출한 중대성(Materiality)은 무엇인가?
- ESG 측면에서 국내건설산업 협력사 변화관리에 적합한 지표는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2.1 ESG의 등장과 변천

2.1.1 ESG의 이론적 배경

2.1.1.1 이해관계자에 대한 논의

ESG의 학문적 뿌리는 멀게는 경제학자 J. Maurice Clark(1916)의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논문 ‘The changing basis of economic responsibility’나 법학자인 E. Marrick Dodd Jr(1932)의 Harvard Law Review 논문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 trustees’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Clark(1916)는 사업을 벌일 때, 많은 적절치 않은 가치(inappropriate value)나 미지급 손해(unpaid damage)가 종종 발생하고 그런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Dodd(1932)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주식회사들의 지상 과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당시 하버드 경영대학원장 Wallace Brett Donham을 인용하여 경영자들이 주주 못지않게 직원, 소비자, 일반 대중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양민, 박지현, 2021).

2.1.1.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20세기 전반에 이런 선구적인 논문들이 등장했으나 실제 경영학자들이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것은 Bowen(1953)이 그의 저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초의 학문적 정의를 내린 이후일 것이다(김양민, 박지현, 2021). ESG 연구는 ‘신고전주의 관점’과 ‘이해관계자 이론’을 출발점으로 한다고 주장한다(최정혁, 2021).

1)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

Friedman(1970)의 신고전주의 관점에 따르면, 기업의 책임은 법과 윤리적 관습에 구현된 기본 규칙을 준수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해 궁극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고용주인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SG 활동은 경영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역이고 경영자의 사익이 개입해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저해할 수 있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최정혁, 2021).

Friedman(1970)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프리드먼 독트린’이란 장문의 칼럼에서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익 극대화라면서 경영자들이 자칫 CSR을 자신들의 사회적, 정치적 커리어를 위한 아젠다로 이용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실제 CSR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가장 큰 논리적 근거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을 주주의 대리인인 경영자가 재무적인 고려가 아니라 사회적 이유(social cause)로 썼을 때 궁극적으로 주주 이익이 훼손된다는 것이다(Friedman, 1970). 이 관점에 따르면 ESG 활동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비용이다. 즉, 기업이 재무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를 이유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기회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기업 재무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Weidenbaum & Vogt, 1987; Williamson, 1967; Vance, 1975).

Wright와 Ferris(1997)는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반대하는 의미로 현지 자산 처분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함으로써 이런 부류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검증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Ioannou와 Serafeim(2015)는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미국에서 높은 CSR 성과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 평가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양민, 박지현, 2021).

2) 이해관계자 관점

이해관계자 이론(Freeman, 1984)은 기업의 책임 대상을 주주로 제한하지 않고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로 확대한다. 기업이 성공하려면 주주가치뿐만 아니라, 직원, 고객, 공급자, 지역사회, 정부,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해관계자 이론은 이해관계자와의 긍정적 관계 설정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고, ESG 활동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자리 잡았다(최정혁, 2021).

Bowen의 정의가 나온 지 거의 70년이 지난 현재, 기업에 있어 CSR 또는 ESG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연기금이나 대형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 활동으로 여겨지는 추세이다. 과거보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더욱 더 넓어지면서 기업에게 CSR 또는 ESG 활동에 대한 압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Berman et al., 1999), 과거 주주 중심의 외부의 이해관계자만을 만족시켜야 하는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업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관심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Mohin, 2012).

이러한 이해관계자 관점에 주목해서 본다면, CSR은 기업의 명성을 높이고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Fombrun, 2005; Fombrun & Shanley, 1990; Freeman et al.,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ESG 활동이나 CSR은 기업의 잠재적인 혁신과 장기적 성과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전략적 이슈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 Baron, 1995, 1999, 2001, 2009; Kiron et al., 2012; Lubin & Esty, 2010).

Ioannou와 Serafeim(2015)은 주식시장에서 위상이 높은 투자분석가일수록 기업의 CSR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긍정적 견해로 바꾸고 있음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양민, 박지현, 2021).

2.1.1.3 ESG에 대한 긍정이론

1) ESG가 차별성을 만드는 전략 : 자원기반 이론

ESG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ESG 활동을 기업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일종의 기업 광고 효과를 갖는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Jones(1995)로 그는 기업의 윤리적 행동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 이해관계자들(주요 공급사나 구매자, 일반 대중)과 지속 가능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 주장하였다. Russo와 Fouts(1997)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기업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경우 그 자체가 일종의 경쟁우위를 발휘하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학자들은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경제적 수익의 긍정적 관계를 주장하였고(Ben Bricket al., 2011; Menguc et al., 2010), 뿐만 아니라 그린혁신 및 지속적인 명성 창출과 같은 CSR 관련 역량이 기업의 경쟁우위 창출에 이바지함을 주장하였다(Chenet al., 2006; Lourenço et al., 2014).

이는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경쟁우위의 원천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CSR 활동도 하나의 자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Hart, 1995). 해당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CSR 활동이 기업의 경쟁우위 획득을 위한 역량 및 특정 기술로 작용하며(Hart, 1995; McWilliams & Siegel, 2011; Russo & Fouts, 1997), 이는 기업의 경쟁우위 향상 및 경쟁자들로부터의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긍정적인 기업성결과까지 연결된다(Clarkson et al., 2011; Waddock & Graves, 1997a). 그러므로 자원기반이론은 ESG 활동의 긍정론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라 할 것이다(김양민, 박지현, 2021).

2) 고성과 기업이 ESG를 실행한다 : 여유자원이론

ESG 활동과 기업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여유자원이론(slack resource theory)에 주목해 볼 수 있다(Waddock & Graves, 1997a). 여유자원이론에서는 더 높은 재무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자원측면에서 보다 더 여유가 있기에 활발히 ESG활동을 펼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은 앞에서 언급한 자원기반이론에 기초한 시각으로 기업의 여유자원을 ESG 활동의 근거로 보고 있다(최준혁, 양동훈, 배홍기, 2017). 즉, 기업이 충분한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원은 기업이 다른 희생을 하지 않고도 보다 활발히 ESG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Artiach et al., 2010; Reverte, 2009; Waddock & Graves, 1997a). 그리고 여유자원으로 인하여 활발히 ESG 활동을 수행한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높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유자원이론에

기초한 ESG 활동은 자원기반이론과 마찬가지로 긍정론에 초점을 둔 입장이
라 할 것이다(김양민, 박지현, 2021).

2.1.1.4 긍정론과 부정론을 함께 가진 신호이론

부정론과 긍정론을 모두 지지하는 이론으로는 신호이론(signaling theory)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호이론은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그보다 적은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신호를 보낼 때 나타나는 효
과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론이다(Connelly et al., 2011). 1970년 George
Akerlof가 ‘The Market for Lemons’에서 중고차 시장을 예로 정보의 비대칭
성 개념을 처음 제시한 이후로, 해당 이론은 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널리 적용되어 오고 있다(예: Cohen
& Dean, 2005; Gulati & Higgins, 2003; Ryan et al., 2000; Srivastava,
2001). 이렇듯 신호이론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으로서 이론의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고, CSR 분야에서도 해당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는 연
구들이 다수 존재한다(예: Backhaus et al., 2002; Greening & Turban,
2000; Rupp et al., 2006; 배준영, 하종욱, 2014; 이현수, 권나영, 김민수,
2019). 신호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외부 이
해관계자들에게 조직에 대한 여러 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신호를 보
낼 수 있는데, ESG 활동도 기업이 외부에 보내는 신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다(Backhaus et al., 200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보의 비대칭상황에서 정
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활용 가능한 정보를 신호로 받아들인다(Rynes,
1991; Spence, 1974).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도
ESG 활동을 신호로 받아들여 기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간극을 메
우는데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자신이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에, 이
러한 정보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ESG 활동을 토대로 기업에 대한 내부의
속성을 추론하고자 할 것이고(Backhaus et al., 2002; Greening & Turban,
2000), 투자자 입장에서는 ESG 활동을 통해 기업 내의 속성을 판단하고 이
를 투자에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이외에 기업 내부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인 종업원들은 ESG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하여 동일시하게 되기도 하고(Rupp et al., 2006), 구조조정 등과 같은 알 수 없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ESG 활동이 활발한 기업의 윤리적 행동을 토대로 미래의 기업 방향을 유추할 수도 있다(이중원, 박철, 2020).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ESG 활동을 통해 내보내는 신호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ESG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ESG 활동을 해당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서 받아들인 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최근의 연구로서 Flammer와 Luo(2017)은 ESG 경영성치가 우수한 기업에서의 직원들의 근무태만과 결근이 보다 더 적고 이는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자들은 ESG 성치가 보다 우수한 기업일수록 기업 명성이 좋고, 고용주의 매력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Greening & Turban, 2000; Turban & Greening, 1997).

반대로 ESG 활동을 부정적인 신호로 인식한다면, 이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로서 투자자들은 ESG 활동을 기업 내부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신호는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이다. Krüger(2015)의 실증 분석 결과, CSR 활동이 주주의 부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투자자들이 CSR 활동을 기업 내부에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인식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호이론은 ESG 활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긍정론과 부정론을 모두 아우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양민, 박지현, 2021).

2.1.1.5 ESG와 기업성과는 관계가 없다 : 제도이론

CSR 성과와 기업 성과 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CSR 성과는 기업의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기에 이 둘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논리적인 면 뿐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CSR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변수가 기업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참고: Alexander & Buchholz, 1978; Fombrun & Shanley, 1990) (김양민, 박지현, 2021).

논리적으로는 DiMaggio와 Powell(1983)의 제도 이론이 ESG의 무용론(無用論)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Matten와 Moon(2008)은 제도 이론을 바탕으로 CSR을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LME)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Explicit(명백하게 이유 있는) CSR과,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Implicit(무조건 해야 하는) CSR로 분류한 바 있다. 전자는 비교적 기업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CSR이고 후자는 국가의 개입과 제도적 규제에 순응하기 위해 하는 CSR이다. 제도 이론에 따르면 전자의 동기는 효율성이고 후자의 동기는 정당성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지현, 김양민(2014)은, 국가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 또는 효율성(efficiency)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DiMaggio와 Powell(1983)이 주장한, 기업의 정당성(legitimacy)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므로 기업 재무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 ESG 활동과 기업 재무성과 관계에 대한 또 한 가지의 최근 연구 흐름은 ESG 활동 자체가 기업 성과에 ‘언제나 좋다’(또는 ‘언제나 나쁘다’)라기 보다는 해당 기업이 가진 경제조건(boundary condition)이나 그 CSR 활동의 종류와 그 측정 시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문정빈, 박소정(2014), 그리고 Giese et al.(2020)의 장기간에 걸쳐 CSR 지수와 재무성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이나, Shiu와 Yang(2017)의 CSR의 보험 효과 연구, Surroca et al.(2020)의 경영자 이익침해 연구, Liu et al.(2020)의 제품 리콜 시 CSR의 역효과에 관한 연구, 그리고 Bhagwat et al.(2020)의 기업의 사회정치적 활동 연구가 이 부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흐름은 CSR이 적어도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한 절대선(絶對善)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또는 아무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가 찾는 ESG 이론이 경제조건 없이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연구들은 건설적인 이론적 논쟁을 이끌어 내는 바람직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김양민, 박지현, 2021).

2.1.2 ESG의 등장과 확산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제시되면서부터 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의 자원과 잠재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할 수 있는 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인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파괴 등의 위기에 직면해 앞으로 대재앙이나 파국을 맞이하지 않고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삼정KPMG, 2021).

1997년에는 기업이나 기관이 발간하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비영리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미국 보스턴에 설립되었다(삼정KPMG, 2021).

2006년에는 UN주도하에 지속가능성 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가 결성되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를 투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과 자산 운용 등에 고려한다는 원칙을 발표했는데(김현수, 2021). 사회적 책임투자원칙(UN PRI)을 제정하며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연기금 운용 시 ESG 이슈를 포함한 CSR 활동에 충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Leem, 2019). 2020년 3월 말 현재 국내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전 세계 3,038개의 투자사 및 투자기관이 UN PRI에 가입되어 있다. UN PRI는 금융 투자 원칙으로 ESG를 강조했다. 이는 점에서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강조되는 ESG 프레임워크의 초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삼정KPMG, 202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SG는 전통적인 금융에 대한 반성에서 출

말하여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사회적 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투자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기후와 환경 변화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탄소중립 의제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 논의가 부각되면서 ESG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 2021).

2016년에는 GRI Standards가 제정되었는데, 2000년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 워크인 GRI Guideline (G1) 이 발표된 후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GRI 표준은 기업과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경제, 환경, 사회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현재 GRI 표준은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지속가능 보고서나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기본적인 프레임워크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삼정KPMG, 2021).

2017년,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이 발표되며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기업 경영이 강조되었는데(차지이, 윤호근, 김미숙, 2021)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의 4가지 측면에서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제시했다(삼정KPMG, 2021).

2018년 EU는 기업의 비재무(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을 완료했고, 2021년에는 산업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500인 이상 사업장 비재무 정보공시 의무화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비재무 정보 요청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인도는 매출액 1,500억 원 이상, 순이익 7억 원 이상 기업들에게 3년 평균 이익의 2%를 의무 지출하도록하는 사회책임 활동 지출 의무화가 2014년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그것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생겼다. 각국 정부 기관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기관의 ESG 시장 참여 확대도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S&P, Moody's, Fitch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이미 다국적기업, 대기업 평가시에 ESG 지표를 반영 중이고, 이것이 중소기업으로도 단계별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언급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은 투자기준 중 하나로 ESG를 채택하고, 기후변화대응에 미흡한 53개 투자 기업에 주주권 행사를 한 바 있다(참고:BlackRock, 2020 Annual Report) (김양민, 박지현, 2021).

2019년 8월에 애플, 아마존, 월마트, 블랙록 등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의 CEO들이 참여한 BRT(Business Roundtable) 연례회의에서 기업의 주주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통합한 새로운 ‘기업의 목적(Purpose of a Corporation)’을 선언하였다. 181명의 글로벌 기업 CEO가 서명한 선언에는 과거 주주(Shareholder)를 최우선시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삼정KPMG, 2021).

2020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가 핵심 화두였으며, 9월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가치 측정 가이드라인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KPMG 등 글로벌 빅4 회계법인이 참여해 작성되었으며, 거버넌스, 지구, 사람, 번영을 4대 축으로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제시되었다(삼정KPMG, 2021).

2020년 1월에는 BRT 선언에 참여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가 전세계 최고경영자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와 위험과 ESG를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로 반영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블랙록은 투자 프로세스에 ESG 정보 분석과 평가를 통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발전에 의존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했으며, 2019년 4억 5,000만 달러 규모에 머물렀던 ESG 운용자산을 2020년에는 23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등 실제 자산 운영 및 관리에 ESG를 반영하기 시작했다(삼정KPMG, 2021).

2021년 1월에도 Larry Fink은 투자자를 위한 연례 서한(Annual Letter)에서 기후 변화에 심각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김양민, 박지현, 2021).

한편,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2004년부터 ESG 항목을 통해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있고(차지이, 윤호근, 김미숙, 2021), UN PRI 준수 본격화와 TCFD 권고안 발표와 발맞춰 국내에서도 2021년 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

의무화가 추진되어 자산규모2조원 이상 기업은 2025년까지, 그리고 2030년까지는 거래소 모든 기업의 ESG 정보공개가 의무화될 것이다(김양민, 박지현, 2021).

종합해보면 ESG는 1987년 발간된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언급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작하여 2006년 UN PRI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2025년부터 국내 의무화 예정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요구는 UN PRI 이행, TCFD 재무정보 공개 권고안 발표, 각국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에 맞추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 BRT 선언과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경영과 자본주의를 강조한 만큼 ESG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SG는 기업가치의 ‘뉴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무적 관점의 기존 경영전략은 재무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고,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성과를 외부에 공표해왔다. ESG는 대표적인 비재무적 성과이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ESG 콘텐츠를 통해 그 성과를 외부에 공시하게 된다. 추후에는 이러한 재무 및 비재무성과가 기업의 경영전략과 공시 보고서에 통합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삼정KPMG, 2021)

2.1.3 ESG의 적용

기업의 ESG 성과는 종종 투자의 핵심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가 활성화되어 있다. SRI는 매출 및 수익성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한다.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일본)에서는 전문 운용사가 운용하는 전체 자산 중 지속가능 투자전략으로 운용하는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6%(18%)로 규모가 거대하다.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 등이 ESG관련 사회적 책임투자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하였다(강원, 정무권, 2020).

2.1.3.1 ESG 주요 이슈 추진 현황

1) 정보공개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 체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CFD)를 구성하고, 2017년 7월 기업 ESG 경영활동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후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ESG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금융위원회, 2021).

유럽국가들은 대체로 법률에 따라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추세이다. 기업의 비재무 정보공개 의무화를 규정한 EU Directive에 따라 각국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거래소 규정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금융위원회, 2021).

영국은 상장사 및 연금투자기관의 ESG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기후 관련 공시규정(proposals to enhance climate-related disclosures)을 2020년 3월 발표하였으며, 런던증권거래소의 중대형, 우량기업 위주의 시장인 프리미엄 부분에 상장된 기업들이 공시 대상이다(공경신, 2020).

2) 책임투자

국제금융공사(IFC)에서 2005년 발간한 「장기적 가치를 위한 투자(Investing for Long-Term Value」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하였다(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이후 유엔(UN)에서 2006년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발표하였다. 유엔의 책임투자원칙(PRI)은 ESG를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해야 하고, 투자기관에게 ESG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책임투자원칙의 수용과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등을 통해 책임투자에 대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에 대한 논의를 통해 ESG와 관련된 책임투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튜어드

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에게 높은 장기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탁자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다(송홍선, 2018). 이러한 스투어드십 코드에는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지배구조, 사회 및 환경 등과 같은 ESG 관점의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주요국 국부펀드 운용사들은 ESG 활동이 미흡한 기업에 대한 책임투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는 ESG가 취약한 기업은 연금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책임투자를 시행하기 위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ESG 관련 주주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여, ESG 평가결과 투자 대상에서 제외 할 기업을 분류한다. 스웨덴 국가연금펀드의 경우 2020년 12월 화석연료 기업을 매각하고 투자를 중단하는 등 책임투자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3) ESG 인증

ESG 경영활동이 화두가 되면서 국제적 친환경 인증 및 글로벌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RE 100(renewable electricity 100%)과 GRP(guidelines for reducing plastic waste & sustainable ocean and climate action acceleration)라 할 수 있다. 먼저, RE 100은 Climate Group 이 주도하고 CDP가 협력하여 만든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도록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을 말한다. GRP 인증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해양 정상회의(Ocean Conference), 기후변화협약(FCCC) 당사국 총회(COP21·파리 기후변화협약)와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 등 주요 환경협약 및 정상회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수립되었다(조대형, 2021). 전세계 1,000여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GRP 인증을 통해 온실가스 및 플라스틱 저감, 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 보호 대응현황에 대해 평가 받고 산업군별 친환경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1.3.2 ESG 적용 기업사례

1) 환경(Environment)

환경분야에서 기업의 ESG 경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례로는 친환경 펀드 조성 및 저탄소 경영을 추진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할 것을 선언하고 2020년 1월 기후혁신 펀드를 통해 마련한 10억 달러의 기금을 통해 탄소제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와 사무실에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2025까지)하고, 업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2030년까지)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데이터 센터인 '프로젝트 나틱(Project Natick)' 계획도 밝혔다. 프로젝트 나틱은 해저에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조력,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2015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20년에 데이터센터 운영 미래 청사진을 발표하는 등 데이터센터의 효율성, 실용성, 친환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엑슨모빌(ExxonMobil)은 기후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기업의 성과가 하락한 대표적인 ESG 경영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엑슨모빌은 1970년대부터 사내의 과학자들이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화석연료가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하는 연구기관 등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반대하는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알리는 등 대중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대응이 누적되면서 미국 환경 단체(conservation law foundation)와 뉴욕주 정부는 2016년 기후 위험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엑슨모빌을 고소하였다. 석유와 가스 투자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엑슨모빌은 이러한 경영활동이 누적되면서 2020년 큰 타격을 입었다. 2013년 시가총액 기준으로 에너지 분야 최대기업이었으나,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넥스테라에너지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조대형, 2021).

2) 사회(Social)

사회 분야에서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는 애플(Apple) 사례이다(중소기업연구원, 2021). 애플은 전 세계 모든 협력업체에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근무시간, 안전, 근로환경 등), 교육 사항(건강, 기술 등), 환경 보호(협력업체의 탄소 배출량 감축) 등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2007년부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디자인부터 제품 조립과정, 물류센터, 유통 등 소매상점과 같은 협력업체의 모든 단계를 포괄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약 50개국 1,100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애플은 2021년 1월 인종 평등과 정의 이니셔티브(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1억 달러의 예산을 가진 인종 평등과 정의 이니셔티브는 인종차별 타파를 위한 프로젝트로 교육(community education initiative), 형사사법 개혁(equal justice initiative), 경제적 불평등 분야(impact accelerator)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흑인 대학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을 위한 사상 최초의 글로벌 혁신 및 학습 허브인 프로펠 센터를 개장하고, 유색 기업인을 위한 벤처 캐피털 펀딩 등을 운영하여 유색 인종 커뮤니티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도자를 양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나이키(Nike)의 해외 공장의 인권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대표적인 ESG 경영의 실패 사례이다. 1996년에 나이키는 해외 공장에서 노동 착취와 학대 등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부 해외 공장에서는 근무 시간에 화장실을 못 가게 하는 등 근로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남아시아의 공장 중 절반 이상에서 주당 근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였고, 추가로 시간외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였다. 나이키는 해외 공장의 인권 문제가 본사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경쟁사의 노동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회피하였고, 나이키는 해당 국가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이러한 나이키의 미흡한 대응은 대규모 불매 운동을 촉발하여 1997년 단 1년 만에 매출이 37% 감소하였다.

3) 지배구조(Governance)

지배구조 분야에서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는 블랙록(BlackRock) 자산운용사의 사례이다(중소기업연구원, 2021).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ESG 경영활동이 미흡한 투자 기업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주주권 행사가 2018년 1,931건에서 2019년 2,935건으로 늘었다. 예를 들면 기업의 ESG 관련 공시가 미비한 경우에는 감시(on-watch) 대상 기업으로 분류되며, 해당 기업에는 약 12~18개월의 ESG 공시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ESG 관련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만족스럽지 않으면 주주권을 행사한다. 또한, 지배구조 결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주권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되며, 구속력은 없지만, 지배구조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2020년 주주총회에서 블랙록은 투자 기업 중에서 총 53개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릴리언(Carillion)은 지배구조의 리스크로 인한 파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카릴리언은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건설업체로 2018년 1월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기업이 파산한 사례가 되었다. 이 회사는 약 43,0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였으며, 50억 파운드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었다. 국제컨설팅 기관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카릴리언의 파산 원인 중 하나가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파산 당시에 카릴리언은 326개 계열사의 이사회 구성과 명단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카릴리언은 실적이 악화됐음에도 경영진에게 과도한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경영진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외면했고, 이사회는 회사의 감독에 실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결국 카릴리언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조대형, 2021).

2.2 건설산업과 지속가능성

2.2.1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기업이 윤리, 혁신, 창조적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김재욱, 2019)을 말하는데,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글로벌 현안을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지속가능경영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혼합된 것이다. 즉, 지속가능경영이란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기업이 윤리, 혁신, 창조적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Shin & Kim, 2008).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때 해당 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재무성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관례이다. 즉 매출액이나 순이익과 같이 기업이 그동안 수행했던 경영활동을 재무성과로 측정하고, 그 재무성과의 크기에 따라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이정기, 이재혁, 2020).

그러나 최근 들어 '비재무적 성과'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예측하려는 노력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경영활동의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을 일삼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단순히 재무성과로만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정확하다는 우려 때문이다(이정기, 이재혁, 2020).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발전과 동의어로, 환경, 사회적 이슈를 인식하고 이를 기업의 전략 계획에 접목하는 것만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백상기, 허희영, 2021).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미래지향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며 이는 건설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KBCSD, 2015; HRI, 2004). 건설산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자연을 어느 정도 훼손하고,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생산제품 구조나 과정 상에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 및 안전 경영 이슈가 큰 사업으로 공공 조달뿐 아니라 해외 조달 시장에서도 지속가능경영 관련 가이드라인이 강화되

고 있어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규범 및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국내외 건설기업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기업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이홍일, 2020) 하였다. 그러나 이는 글로벌 및 대형 건설회사 사례 중심의 연구로 전문건설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혁신 인프라 미흡, 혁신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 부족,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부재(홍성호, 2016) 등의 이유로 인해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협력사 적용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공급망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최철곤, 2015).

건설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운전하는 고속도로, 일상 활동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발전소와 인간 사회의 기반시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번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건설업은 전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중요한 고용 창출 원이며 전 세계 전체 고용 인구의 거의 7%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안용한, 김수련, 권성준, 201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 운영, 유지, 철거 등의 건설 활동은 또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오존 고갈, 토양 침식, 사막화, 산림 파괴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와 관련된다. 수질 및 오염, 어업 고갈, 그리고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사용, 광물의 대단위 채취 등이 인간의 건강, 안락함,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안용한, 김수련, 권성준, 2018). 결국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이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여 가치와 목표의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건설기업의 미래지향적 경영방향과 전략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김재욱, 김한수, 2019)

건설 산업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건설 활동과 관련된 환경 문제를 완화하는 사용자의 높은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안용한, 김수련, 권성준, 2018). 이에 일부의 국내 건설기업은 실무적, 단기적 현안과 전략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글로벌 이슈 등 시대적 요구 및 가치에도 비중을 두는 것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경영 방향과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트렌드를 관찰

할 수 있지만(김재욱, 김한수, 2019), 국가 경제성장과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건설산업이 이러한 지속가능성의 시대적 조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산업은 이에 대한 논의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문경직, 박정호, 2009).

2.2.2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관리

외부환경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해하여 대응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공급사슬의 구매업체와 공급업체 간의 주문, 구매, 공급, 결제에 관한 다양한 거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고자 하지만 개별기업의 특성과 불확실성에 따라 통합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기업 간 협력과 프로세스 연결을 통한 SCM 성과 최대화를 위해 공급사슬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김기형, 2020).

공급망 관리란 공급업체부터 최종소비자까지 제품 및 서비스 흐름에 대한 프로세스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흐름 구조로(Lambert, 1998 : 이돈희 외, 2017에서 재인용), 공급사슬 파트너십은 기업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관계를 가지는데(최철곤, 2015), 조달, 생산, 판매기업 간 국가를 뛰어넘는 글로벌화와 생산자,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의 역할 구분이 어려워지고, 기업 간 경영환경과 거래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공급사슬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김기형, 2020).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공급망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적은 투자로 많은 개선이 가능하고, 정보 전달 측면에서 공급망의 왜곡을 줄일 수 있으며, 글로벌화에 따른 공급망(SC)의 복잡다단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전사적 자원관리(ERP)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와 프로세스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급망관리는 재고와 관련 비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고객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과 유연성 향상, 그리고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관리도구라고 할 수 있다(김동정, 2015)

또한, SCM은 재고, 운송 및 취급 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품질, 납기, 리드타임 단축으로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주문 및 조달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제거함으로써 생산계획을 합리화하고 배송 장소 및 납기 등을 만족시켜 전체적인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SCM을 통해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제품의 흐름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여 제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고비용의 재고관리 업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KOSBI, 2005 : 성호경, 이민호, 부제만, 2020)에서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건설업체는 전체 건설업체의 98%(2018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할 만큼 산업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 중견 건설업체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어 산업의 기반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최은정, 2020)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다.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CM 통합수준을 높여 공급사슬망의 유연성 및 불확실성 감소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보다 더 유연하고 안정감 있는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성호경, 이민호, 부제만, 2020)

공급사슬은 기업의 내부 조직간 협업체계가 외부 기업 간으로 확장된 형태이므로, 공급사슬에서도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 수행할 수 있어(김상조, 2002), 대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과거의 공급망 관리는 생산성 향상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원활한 원자재 수급 및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관리에 지속가능성요소를 통합시킨 개념인 지속가능 SCM 이 등장하였다. 지속가능 SCM이란 공급사슬 전체의 이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환경적 부담 감소 활동과 사회적 공동의 선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 자원, 지식, 정보, 자원 등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Hassini, 2012 : 이돈희 외, 2017)에서 재인용)을 말한다.

Elkington(1994)은 1990년대 중반에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의 핵심개념인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line, 3BL)을 제안하였다. 트리플 바텀라인(3BL)은 단순한 기업의 성과지표 측정을 넘어 기업경영 철학을 반영한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다. 트리플 바텀 라인(3BL)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 및 경제적 성과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이익 추구

뿐만 아니라 환경적·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해야 됨을 의미한다(강경훈, 2018). 최근 몇 년 동안 지속가능한 SCM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월마트, 나이키, 이케아, 보잉, 시스코, 지멘스, 네슬레, 허먼밀러, 델 등과 같은 많은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SCM 도입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게 된 사례가 있다(Rajeev et al., 2017 : 강경훈, 2018).

이원희와 이수열(2014)은 지속가능 공급사슬 관리의 개념을 사용하여 기존의 개별적이고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공급사슬의 거래공정성, 친환경, 사회적 책임의 통합모형을 제시하고, 관계자본을 통해 공급사의 환경성과, 생산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공정성, 친환경, 사회책임 등은 ESG와 관계가 있으나 ESG 경영의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구체적인 지표 제시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급망 관리는 1970년대에는 본격적인 대량생산체제 도입에 따른 종합적 품질관리 (TQC, Total Quality Control) 와 생산성 향상을 테마로 하여 재고감소, 원자재 수급 및 원가절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공급망의 Capacity 확보 및 거점 구축을 통하여 생산을 최적화하는 전략 방향으로 변모하였다. 2000년 대에 이르러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안전성의 기준이 높아졌으며 2015년 이후에는 지속가능경영 개념과 통합되어 공급망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평가 및 실사를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표 1〉 공급망 관리 (SCM)의 발전 방향

년도	테마	주요내용
1970~1985	TQC &Productivity	대량생산체제 도입, 재고감소 원자재 수급/원가절감 추진
1985~2000	Ethical Procurement	Supplier 통합 시스템 구축 Capacity 확보 및 거점 구축을 통한 생산 최적화
2000~2015	Responsible SCM	Sourcing Process 추적 Sourcing의 친환경성 및 안정성 기준 강화
2015~	지속가능경영 Integration	지속가능성 평가 및 실사 공급망 잠재 리스크의 내부화(관리범위로 통합)

*출처: 한국생산성 본부+POSRI ('19년)

2.3. 성과관리지표 및 ESG

2.3.1 ESG 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

2.3.1.1 ESG평가기관과 평가기준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함께하는 ESG의 새로운 길’을 발간하며 “전세계 ESG를 평가하는 기관이 600개가 넘고, 같은 기업도 기관에 따라 최대 5단계까지 평가결과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아직 국제표준의 ESG 평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재무성과 또한 국제재무보고기준과 같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ESG 정보공개기준 및 프레임워크 구축 기관들인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기후공시표준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 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등 8개 기관은 공식 협의체인 CRD(Corporate Reporting Dialogue)를 통하여 서로 간의 지표와 기준 차이를 해소해 ESG 정보공개기준을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IIRC와 SASB는 Value Reporting Foundation을 설립해 투자자와 기업에 포괄적인 기업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중반까지 합병하기로 합의하였다. WEF-IBC도 2021년 1월 회의에서 개발된 통합지표(WEF, 2020)의 더 넓은 채택과 확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운선, 문혁, 이태식, 2021).

ESG 평가기관은 평가대상기업에 관하여 공시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평가한다. ESG 평가등급은 지속가능성 및 기업지배구조의 수준 또는 ESG 사안의 관리체계 및 위험의 수준 정도를 몇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제공한다(장윤제, 2021).

〈표2〉 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과 현황

구분	기관명	지수 명칭	평가지표	연혁	평가방법
국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281항목	2011	- 기업공시, 기관자료, 미디어자료 활용
	서스틴베스트	ESG Value	자사 모델 사용	2006	- ESG 각 영역에 대해 Category, KPI, Data Point 순의 단계별 하부 체계로 구분
	대신경제연구소	-		2017	- 수기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초조사 및 정량적 문항 평가
국외	Refinitive (Thomson Reuters)	ESG Score	400 항목 이상	2009	- ESG Score로 구성, 10개 카테고리, 이슈가 많을수록 가중
	Dow Jones	DJSI	최대 120항목	1999	- 산업에 따라 industry-specific criteria 적용 - 산업별 설문조사 시행 (80~120문항)
	Morgan Stanley	MSCI ESG Ratings	37항목	-	- 정부 데이터베이스, 기업공개자료, NGO 데이터 자료 활용
	Bloomberg	ESG Data	120항목 (환경/사회/투명성)	2009	- 120 indicators, 정보 누락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
	RepRisk	ESG Ratings	28항목	1998	- 80,000 미디어 및 이해관계자 데이터 소스 모니터링
	Sustainalytics	ESG Ratings	70항목	2008	- 70 indicators, 3 dimensions

* 출처 : 천장은, 박희태(2021)

해외에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ESG 평가기관은 Bloomberg, CDP, FTSE, Russel, ISS, MSCI, Refinitiv(투스 로이터), RepRisk, S&P Global, SUSTAINALYTICS(MorningStar가 인수하였으나 별도 법인으로 서비스 지속 중), V.E(Moody's가 인수하였으나 별도 법인으로 서비스 지속 중) 등이 있는데 주요사업분야와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장윤제, 2021).

〈표3〉 주요 ESG 평가기관의 사업 분야

평가기관	사업분야
MSCI	조사분석, 기후 관련 투자, ESG 투자, 팩터투자, 지수, 부동산 투자
SUSTAINALYTICS	투자자 대상 ESG 솔루션, 기업대상 ESG 솔루션
ISS	거버넌스 솔루션, ESG, 시장정보, 거래비용분석, 펀드 서비스, 집단소송 서비스, 15(C) 서비스, 미디어 솔루션, EVA, 기업 솔루션
S&P Global	데이터&분석, 연구 및 논평, 벤치마크, 신용등급, ESG 솔루션
CDP	환경 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환경평가, 정보제공, 환경운동

*출처 : 장윤제(2021)

〈표4〉 주요 ESG 평가기관의 ESG관련 서비스

평가기관	사업분야
MSCI	ESG 펀드 평가, ESG 지수, <u>ESG 평가</u> , 임팩트 솔루션, 지속가능 금융 솔루션
SUSTAINALYTICS	(투자자 솔루션) ESG 위험 평가, EU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 대응, 임팩트 솔루션, 기후 솔루션, ESG 스크리닝, 컨트러버시 리서치, 거버넌스 리서치 & 평가, 국가 ESG 위험 리서치 & 평가
	(기업 솔루션) ESG 채권 인증, ESG 평가 인증, 공급망 ESG 평가, 은행 ESG 제고, <u>ESG 위험 평가</u>
ISS	리서치, 규제 솔루션, ESG 펀드 평가, <u>ESG 평가</u> , 임팩트 &SDGs, 스크리닝&컨트러버시, 기후 솔루션, ESG 지수, 거버넌스 데이터, ESG 투자자문, 인게이지먼트, ESG 채권 및 대출 관련 인증
S&P Global	<u>ESG 점수</u> , <u>ESG 평가</u> , ESG 벤치마킹, ESG 채권 평가 및 인증, 조사 및 분석, 지수
CDP	환경 정보 공개시스템 운영, <u>환경평가</u> , 정보제공, 환경운동

*출처 : 장윤제(2021)

〈표5〉 글로벌 주요 평가기관의 ESG평가기준

Pillar	Thomson Reuters	MSCI	Bloomberg
Environmental	Resource Use Emissions Innovation	Climate Change Natural resources Pollution & Waste E n v i r o n m e n t a l opportunity	Carbon Emissions Climate change effects Pollution Waste disposal Renewable energy Resource depletion
Social	Workforce Human Rights Community Product Responsibility	Human Capital Product liability Stakeholder opposition Social Opportunities	Supply Chain Discrimination Political contributions Diversity Human Rights Community relations
Governance	Management Shareholders CSR strategy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behavior	Cumulative voting Executive compensation Shareholder's rights Takeover defense Staggered boards Independent directors
Key metrics and sub metrics	186	34	>120

*출처 : Claire Jolly(2021)

주요 평가기관의 ESG 평가기준이 대체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 사용과 자원고갈 같은 특정 지표를 사용하는 Bloomberg의 예처럼 평가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가 존재하기도 한다. ESG지표표준 통합은 세계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Claire Jolly, 2021).

2.3.1.2 ESG공시 표준 가이드라인

비재무 정보 공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있다. 세계적으로 ESG 정보 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곳은 20개국 미만이지만 이해관계자 요구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 중이며,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GRI 및 SASB의 표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공시는 기업의 ESG경영을 요구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의 재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ESG이슈에 대하여 경영전략을 갖고 있는지, 위험관리 차원에서 어떤 관리감독체제가 투자대상기업에 마련되어 있는지 등 이들 정보에 접근하려는 투자자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업공시제도의 정비를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이 ESG요소를 경영에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업의 행동변화를 의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기업공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공시법제에 ESG요소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해외 각국에서 매우 활발한 것은 바로 공시를 통해 기업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안수현, 2021).

2000년부터 발간된 GRI 보고서는 전 세계의 보고서 사용자, 보고자, 전문 중개관이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써 현재 사용하는 G4 가이드라인은 보편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조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안소영, 2018), GRI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과 보고를 위한 지침이자 전세계적으로 표준화 된 기준이자 실천 메뉴얼(이병옥, 2016)로 이를 참고하여 전 세계 수만 개의 기업이 지속가능성보고를 발간한다(권성식, 2019).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할 때 사용할 표준을 설정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조직으로 SASB 표준은 기업이 기후 변화, 천연 자원 제약, 기술 혁신, 인구 증가 등과 관련된 문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일관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SASB 표준을 통해 투자자는 회사가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정보를 통해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Jeffrey Hales, 2021).

2.3.1.3 주요 ESG평가지표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재무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기회와 위기를 평가하고 있는 DJSI는 미국의 금융정보사인 S&P 다우존스 인덱스(S&P DOW Jones Indices)와 스위스 SAM사에 의한 측정지수으로써 투자의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안소영, 2018), DJSI는 1999년 발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표준으로 투명하

고 객관적인 평가로 재무적 평가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측면의 종합적인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김영석, 정병국, 2015).

DJSI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환경적 차원 순의 비중으로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다(백상기, 허희영, 2021).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에서는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기업별로 발간되는 MSCI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업의 전반적인 CSR 등급을 최상위AAA부터 최하위 CCC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등급산정의 기초가 되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평가영역별 평가점수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러한 영역별 평가점수의 동종업계 평균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해당기업이 동종 산업에서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최기호, 박청규, 최보람, 2015).

국내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는 매년 전년도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전체, 일부 코스닥시장(KOSDAQ)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외부 평가를 요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인수목적기업(SPAC) 등 명목회사, 관리종목 지정기업, 신규상장 등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700여 개의 KOSPI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매년 900여 개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2019년 923개)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정기, 이재혁, 2020)

2.3.2 성과관리지표와 ESG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파악하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고 목표를 재설정하며 그에 따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기업 활동에서 성과측정은 경영성과 평가, 인적자원관리, 전략 실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부터 첨단 IT 산업에 이르기까지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측정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왔다(임우석, 정지현, 이학기, 2015).

Kaplan와 Norton(1992)은 많은 기업이 재무적 관점의 성과측정치에 의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통적인 재무적 측정치들은 미래의 성과를 개선할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나타낼 뿐이다. 또한, 조직에 많은 가치를 창출해주는 혁신과 변화, 직원들의 지식, 고객 관계가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협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을 알게 되었다(임우석, 정지현, 이학기, 2015). 이에 단기 재무지표 위주의 성과측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aplan와 Norton(1992)은 균형성과 지표(BSC; Balanced Scorecard)를 고안하였으며, ESG 성과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BSC 관점의 고려가 필수적이다.

BSC는 재무적 측정치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성과평가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여 기업의 상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전략적 성과평가시스템이다. 이들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단순히 과거나 현재의 재무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고객 관계, 기업 내부의 업무 수행능력, 조직 개선 및 혁신능력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임병규, 김명희, 김준호, 2009). 즉, 환경, 사회에 대한 영향도가 단기적으로 측정될 수도 있지만 BSC가 규정하는 고객,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관리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의 ESG 성과는 종종 투자의 핵심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이미 도덕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RI는 매출이나 수익성 외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인 ESG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 투자수익을 추구한다(강원, 정무권, 2020). 2020년 S&P (Standard & Poor's) 500의 무형 자산은 21조 달러로 총 자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SG 요소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미래 경쟁우위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며, 그 성과에 대한 장기적 접근과 평가가 필요하다(이윤선, 문혁, 이태식(2021).

ESG정책과 투자는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자산과 특성을 반영한다. Hanson(2013)은 가치투자에서 중요한 양질의 수익력(earning power)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분석해야 하며 이는 지배구조, 기업문화, 종업원, 고객, 거래처와의 관계, 경쟁력 등과 같은 비재무적

자산에 대한 평가를 요한다고 하였다(강원, 정무권, 2020).

성과지표 선정의 기준으로서 영국의 재무부에서는 연관성, 결과(outcome) 지향성, 판별가능성, 편의성, 검증가능성, 왜곡유인회피, 적시성, 비교가능성, 영향파악 가능성의 9개를 제시한다(박기백, 2004). 우리나라 조직들에서는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로 알려진 기준(전택승, 2004)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A와 T는 지표 특성이라기보다는 목표치(targets) 수준에 대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S,M,R의 3개 기준만 지표선정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Ria(1974)는 성과지표의 기준으로 적합성, 측정성, 도전성, 달성가능성의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앞의 두 가지는 지표선정 기준이고 뒤의 두 가지는 목표치에 관한 것이다. 이상의 주장을 종합하여 지표 선정 기준을 본다면 크게 측정성과 지표 자체의 적합성(연관성, 결과지향성, 왜곡유인회피, 영향파악가능성, 구체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정규석, 2011).

본 연구는 장기간 검증을 거친 글로벌 ESG 성과지표들을 활용하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에 적용하던 평가 기준을 국내 중소 협력사에 적용함에 있어 적합성과 측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선별과 보완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 BSC 관점이 고려된 많은 ESG 평가 및 관리 지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 및 ESG 이슈를 분석한 배창현 외(2021)의 연구와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정기·이재혁 (2020) 연구에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연구된 ESG 평가지표가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ESG 평가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기존 연구가 두 평가지표에 집중된 이유는 대부분의 논문이 국내 기업을 표본으로 삼고 있고, 두 평가기관이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그 평가결과가 공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배창현 외,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KCGS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글로벌 ESG 평가지표를 포함해서 검토, 활용하고자 한다.

2.4 건설산업의 특성과 공급망 관리

2.4.1 건설산업의 특성과 ESG

건설공사는 수행과정에서 수많은 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을 유발하고,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전후방연쇄효과를 살펴보면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구입하는 정도를 말하는 후방연쇄 효과가 공산품,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전후방연쇄효과(2015년 기준)

구분	영향력 계수(후방연쇄효과)*				감응도 계수(전방연쇄효과)**			
	'00	'05	'10	'15	'00	'05	'10	'15
건설업	1.084	1.043	1.154	1.035	0.610	0.565	0.571	0.541
공산품	1.038	1.022	1.065	1.012	2.005	2.114	2.052	2.040
서비스업	0.883	0.876	0.918	0.867	1.691	1.736	1.423	2.015
전산업평균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5)』

* 후방연쇄효과와 영향력 계수 : 후방연쇄효과는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구입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동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계수를 영향력 계수라 함(1보다 큰 경우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임)

** 전방연쇄효과와 감응도 계수 : 전방연쇄효과는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위해 판매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동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하는 계수를 감응도 계수라 함(1보다 큰 경우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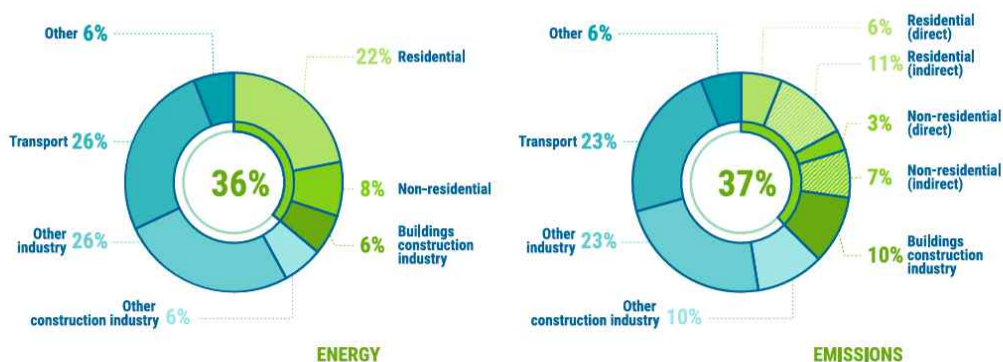
한편, 건설산업은 시장구조면에서 주문생산적 기업, 즉 수주산업이다. 건설사업자는 발주처나 건설주로부터 발주를 받아 생산활동을 시작하고, 구조물과 건축물 등을 완성하여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규격화·제품화한 시장생산, 예정생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재고품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기업운영상 탄력성이 없으며, 생산의 기본구조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건설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모든 생산수단과 노동력

을 상시로 갖추 수 없으므로 전문기술이나 기능, 장비, 노동력 등을 외부의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수주하면 철강재나 시멘트 등의 자재는 제조업자로부터 조달하고, 조적·미장·철근·설비·수도공사 등은 각각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하게 하며, 노무자는 노동조합이나 인력공급업자로부터 알선받아 고용한다. 건설사업자는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관리하여 하나의 시설물을 완성하는 것이다.

2.4.1.1 환경

건설산업은 생산과정 자체가 불가피하게 자연을 훼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건설자재 생산과 건설시공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와 폐기물, 비산먼지 등 오염 물질도 다량 배출하고 있으며,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 2020년 기준 빌딩과 건설공사는 전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36%, 그리고 탄소 배출량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2〉빌딩과 건설부문의 글로벌 최종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



* 출처: 2021 Global Status Report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

특히, 건설산업은 생산활동이 옥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사의 수행에 있어서는 기상상황 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동절기나 장마철에는 생산활동을 중단되는 등 기상조건 여하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지연, 자재 및 장비 수급의 영향, 비용 증

가, 근로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후변화 이슈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및 폭염, 폭우, 지속되는 산불 등 전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금년도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금 펀드는 화석연료와 관련된 투자를 중단하기로 발표했고, 2020년 미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의 CEO인 래리핑크가 ‘앞으로 환경을 신경쓰지 않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투자기관 및 많은 기업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최근 5년간 공사 수행중이거나 개발중인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는 66% 줄었으며, 계획된 석탄화력 발전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 되었다. 투자자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의 요구와 각국의 정책변화로 탈석탄,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건설업을 둘러싼 시장 현정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해 연간 배출량이 5만톤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연간 배출량 12.5만톤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여 기업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도급순위 30위 이내 건설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톤 미만이라도 배출량을 매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주요 건설사들도 이에 따라 탈석탄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에서 소요되는 주요 자재인 철근, 콘크리트 등은 제조, 시공, 운영 등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배출량 저감을 위해 협력사 및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수많은 건설 폐기물을 배출한다. 2019년 기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등 폐기물 관리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폐기물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처벌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 건설현장에서의 철저한 폐기물 분리 보관, 분리 배출 등 적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은 자원 선순환 측면에서도 주요한 이슈이다.

〈그림3〉연도별 폐기물 발생량 추이



* 출처: 한국폐기물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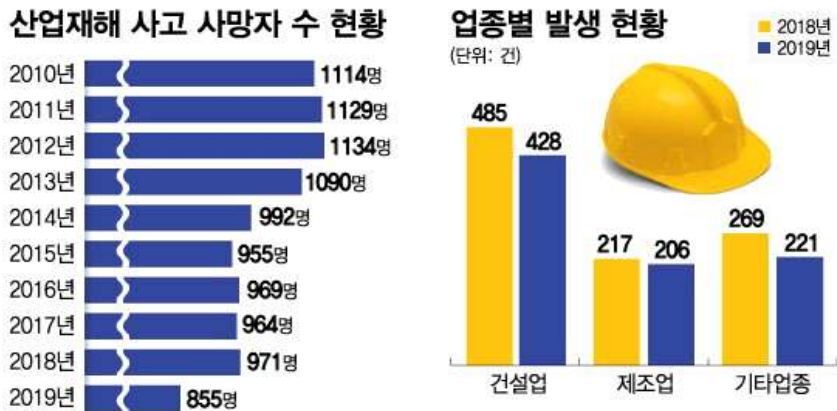
또한, 건설공사의 프로젝트 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 생태계 보존 및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도들이 갖추어져 있으나 여전히 도로, 항만, 댐, 발전소 등 신규 개발사업이 멸종 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한다는 논란이 있으며 착공 이후에도 지역사회 및 환경단체 등의 문제 제기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2.4.1.2 사회

건설산업은 타 산업보다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건설업의 생산활동은 주로 옥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량물의 운반 및 설치, 중장비의 투입 및 사용, 암석의 발파작업, 수중작업, 건축물의 고층화 현상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의 요인이 많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사고도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여 높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2019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55명 중 건설업 사망자가 485명으로

57%를 차지한다.

〈그림4〉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현황 및 업종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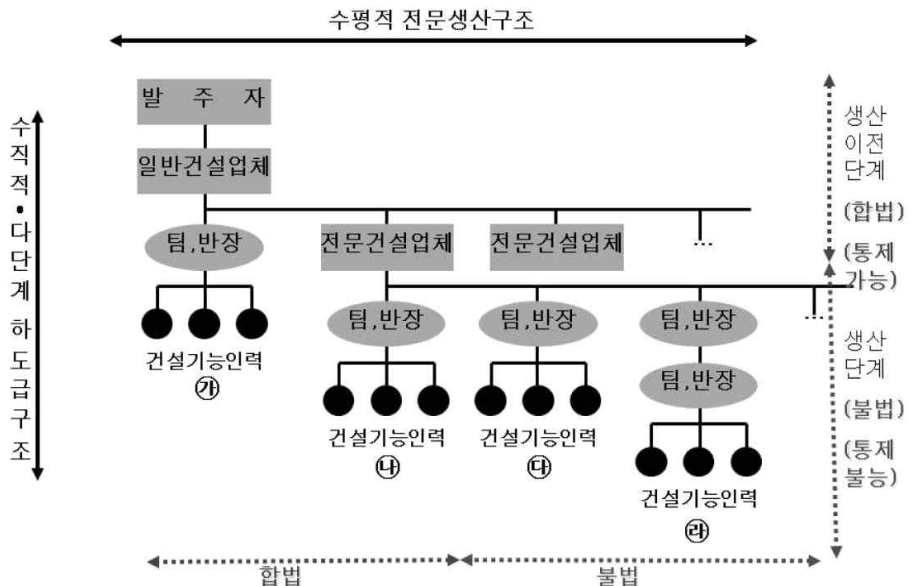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율이 높은 것은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의 특성과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건설업 일자리는 사무직, 기능직, 기술직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한국은행에서는 건설업 고용유발계수를 2010년 10.5명에서 2014년 10.2명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의 평균 고용유발계수인 8.7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박선구, 홍성호, 2017).

그러나,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수주 및 관리 등의 항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내부노동시장), 생산활동과 직결되어 수요가 불규칙한 노동력은 비정규직으로 외부에서 충원(외부노동시장)하고 있다. 이것이 건설현장의 하도급 구조로 나타난다. 일반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가 수주 및 관리활동을 위해 정규직 또는 상용직 (현장채용직이라고도 함)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력을 일반적으로 ‘기술관리인력-엔지니어 또는 대줄자 등’ 이라고 칭하고, 직접적인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노동력을 ‘기능인력’이라고 부른다. 즉, 〈그림 5〉에서 건설기능인력은 수주생산과 옥외생산의 특성에서 비롯된 작업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기업

밖에 존재하는 비정규근로자에 머물게 되었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말단에서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심규범, 2009).

〈그림5〉 건설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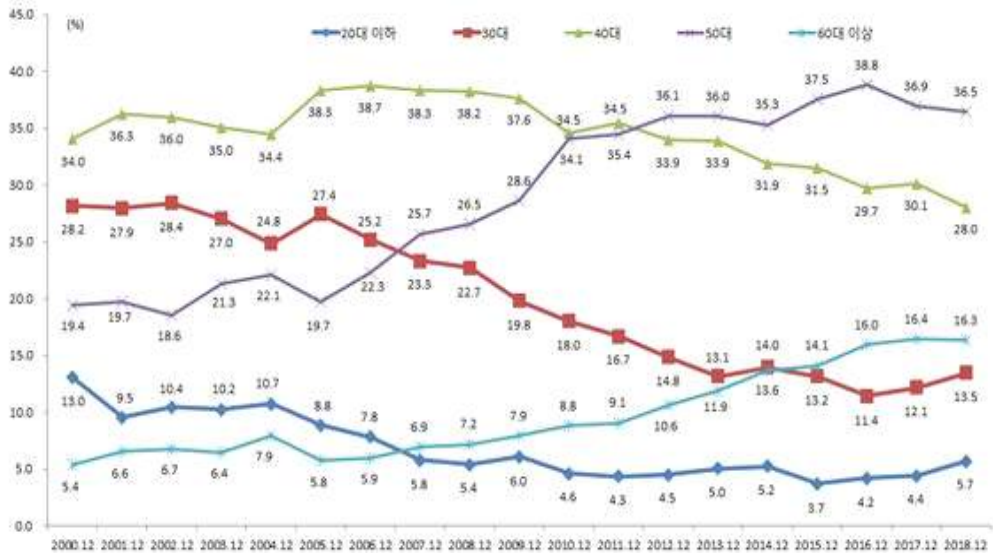


주: 그림의 수직구조는 직영공사 또는 직접시공공사의 형태이고, 수평구조는 하도급 구조를 나타낸 것임. 예를 들면 그림의 ㉠은 전문건설업체가 직영공사하는 형태이고, 그림의 ㉡는 전문건설업체에서 팀, 반장으로 하도급되는 형태를 나타낸 것임.

* 출처: 심규범(2009)

건설현장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50대와 60대 이상의 기능 인력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8년간 3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의 비중은 줄어드는 한편 50대 및 60대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6〉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구성비 추이



주: 건설기능인력은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합한 개념임

*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또한,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도 늘어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2만6391명으로 전체 인력의 19.5%를 차지한다. 이는 합법적인 경우만 합산한 것으로, 실제로는 80%에 달한다고 한다.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업 입직 기피현상 및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노동력을 보완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하다.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체류 이슈, 내국인 근로자와의 분쟁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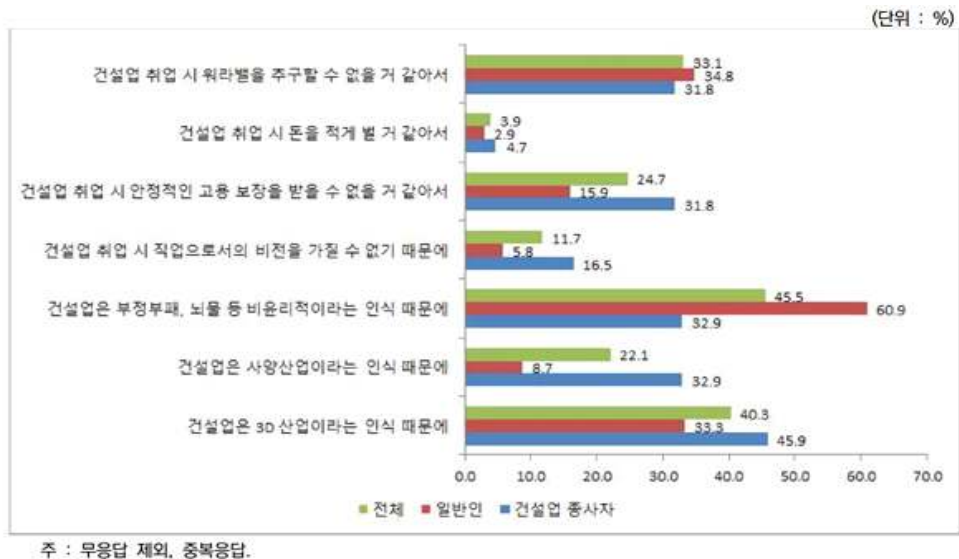
한편, 주 52시간의 도입으로 인해 건설업은 더욱 더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시간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상승시키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

며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반면 건설산업이 옥외에서 이루어지고 기후에 영향을 받는 등의 특성에 따라 공사기간 지연, 전문인력 확보 곤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2.4.1.3 지배구조

건설산업 하면 부정부패 이미지가 강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매년 전국 사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부 부분의 부패심각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건설 부분의 부정부패는 2019,2020년 2년 연속 가장 심각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2020년 12월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건설업의 이미지 실태 분석을 위한 건설업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9.0%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건설업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건설업은 부정부패, 뇌물 등 비윤리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응답이 1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7〉건설업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



*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 방안’ (최은정)

건설산업은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과 장시간에 걸쳐 인허가, 심의, 검사 등 사업 수행 중 거쳐야 하는 수많은 행정절차로 인해 부패 및 부조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청탁, 공사 수주와 입찰과 낙찰 단계에서의 비리, 시공 감독 비리, 인허가 비리, 부실시공 묵인 등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특혜 및 편의와 관련된 부조리 사건이 발생하며, 이는 금품 및 향응 제공과 같은 뇌물과 관련될 확률이 높다. 특히, 수주 단계에서 시작된 뇌물 공여는 시공 단계로 이어지며, 공무원 및 공공 발주자와 기업의 유착 관계로 지속되기도 용이하다. 또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임금 체불, 대금 미지급, 부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등 원도급자의 부패 혹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 등 이슈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윤리 및 준법 경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부패 및 불공정 행위 발생시 법적 조치되거나 공공 입찰에서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

〈표 7〉 건설단계별 주요 부조리 유형

건설단계	주요 부조리 유형
기획/조사 단계	- 사업 선정 부적정 - 토지 용도 및 형질 변경, 고도제한 완화 등 관련 청탁
설계 단계	- 특정 공법, 제품의 채택 비리 - 비경제적 공법 적용 등 설계 부적정 및 부실 설계 묵인 - 공사 물량 과다 설계, 공사비 과다 계상
입찰/계약 단계	- 입찰 정보 유출 - 입낙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 - 권한 남용 혹은 분할발주로 부적절한 수의계약 - 금품/향응 제공 - 민간 업체간의 담합
시공단계	- 인허가 및 심의 등 각종 업무 처리의 특혜 및 편의 제공 - 관행적인 향응 및 금품 제공 - 허위내역서, 허위 서류 작성 - 시공 감독의 부당 행위 및 비리 - 부실 시공 방조/ 묵인

	- 불법 하도급/일괄 하도급 - 설계변경 관련 비리 (부당한 변경, 편의 제공 등) -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에서의 비리
유지관리 및 운영 관리	- 여러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비리 - 특정 건설단계와 관련 없는 관행적 떡값

* 출처 : 윤영석, 박용석, 성유경(2014)

2.4.2 건설산업에서의 공급망 평가체계

2.4.2.1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

최근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필수 원재료 코발트의 채굴·생산과정에서 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어 고위험 광물의 윤리적 구매 등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EU에서는 ‘21년 역내에 설립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전체의 환경, 인권 현황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 실사제도’ (EU system of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가 법안을 상정하는 등 ESG가 글로벌 기업을 시작으로 공급망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애플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시 글로벌 협력사의 동참을 요청했으며, 미국의 아웃도어 회사 파타고니아의 경우 협력업체 선정, 유지 기준에 사회와 환경 등과 관련된 내용을 결합하여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시작으로 발빠르게 ESG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K-ESG 평가 도입 및 공공조달 시 ESG 평가 강화, 시중은행의 신용평가 및 금융지원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물량예측이 힘들고 공사 물량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장비, 인력 등의 상시 고용이 어려워 하도급 의존성이 강하며,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표8>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율 추이로, ‘19년 기준 외주비가 58.44%, 재료비가 24.27%로 협력사로부터 조달하는 비율이 82.71%에 달한다. <표9>으로 알 수 있듯 실제로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종합건설업에서 관리하는 전문건설사만 해도 수백 개 이상이며, <표

9)에서 보이듯 국내 전문건설사의 99.9%는 중소기업으로 전문건설업과의 원활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표8〉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율 추이

구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기계경비)	공사원가
2017	24.90	6.17	56.79	12.15	(2.02)	100.00
2018	22.95	7.54	57.43	12.09	(2.61)	100.00
2019	24.27	5.71	58.44	11.59	(1.83)	100.00

* 출처 : 대한건설협회

〈표9〉 주요 건설사 공사 하도급 등록협력사 수

구분	C사	B사	J사	P사	A사
등록업체수	1,007개사	834개사	815개사	720개사	480개사

* 출처 : 각 사 자료

〈표10〉 전문건설업 내 중소기업 비중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준)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문건설업	58,008	59,742	61,757	64,382	67,482
중소기업	57,961 (99.9%)	59,688 (99.9%)	61,674 (99.9%)	64,309 (99.9%)	67,405 (99.9%)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건설업 조사

2.4.2.2 국내외 종합건설사 공급망 평가 현황

본 논문에서는 2020~2021년에 발간된 국내외 주요 종합건설사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를 통해 주요 종합건설사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살펴본다.

글로벌 최대 규모의 건설사인 E사는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2018년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행동강령'을 수립하였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행동강령'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법규 준수, 품질경영, 환경과 사람에 대한 존중, 고객만족, 반부패, 인권 존중, 안전보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사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이 행동강령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0년 E사의 협력사 중 92.8%가 이를 수락하였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에 ESG를 통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협력사의 승인절차에 있어서 평균 지급기간, 기술능력, 계약 수행 이력 이외에도 비즈니스 행동강령에 따른 ESG 측면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ESG요소의 평가 가중치는 공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20년 기준 가중평균 38.5%를 초과하였다. ESG와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는 환경 (ISO 14001, EMAS 등), 품질 (ISO 9001 등) 관련 인증서 보유, 국제 인권 및 노동권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2020년에는 E사의 협력업체의 51.8%가 윤리, 사회, 환경적 기준에 부합하였다.

협력사 승인 절차 이후에는 협력사 관리 및 개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프로세스를 통해 공급망의 경제, 사회, 환경 관련 리스크 혹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 감지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며, 중대 위반사항의 발생시 즉각 계약해지 한다.

해외 F사도 최근 공급사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협력사에게 윤리, 청렴, 투명성, 안전보건, 환경, 공급망 인권존중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F사는 ESG를 공급망 관리에 통합시키고 공급사 승인, 수행도 평가와 사후관리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결과를 통해 협력사는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부패방지 위반 등 심각한 경우 F사의 협력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2020년 기준 F사에 신규 등록한 20,535개의 협력사 중 10,000개 사 이상이 평가되었으며, 그 중 1% 미만의 협력사는 평가를 통해 승인이 거절되었다. 한편, F사는 신재생 에너지 조달 확대, 녹색 제품 구매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조달을 확장하는 혁신 프로젝트도 수행 중이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G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책임 있는 조달 가이드라인' (2008년) 과 '부동산 개발을 위한 녹색 조달 가이드라인' (2009년) 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 2003년 도입된 사내 EHS 정책에 따라 이 가이드 라인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 사용을 권장 하고 있으며, 모든 협력사는 2015년 시행된 공급사 행동강령에 서명해야 한다. 공급망 행동강령에는 환경, 안전 보건, 윤리적 고용 준수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0년 상위 100개 공급사와 상위 5개 원자재를 대상으로 ‘공급망 세분화 연구’를 통해 환경(탄소 집약도 등) 및 사회적 위험(강제노동, 아동노동 등)이 높은 공급사와 건축자재를 규정, 평가하였으며 21년 대응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A사는 2014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는 윤리, 리스크, 하도급관리, 성과관리 등을 평가하며 환경적 측면에는 환경경영체계, 환경경영시스템, 환경법규 준수, 환경성과 관리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며 사회적 측면에는 노동, 인권, 인재개발, 산업안전, 제품/현장 안전등을 평가하고 있다.

〈표 11〉 A사 협력사 평가 및 조치 결과

협력사 평가 및 조치결과				(2019년 12월 30일 기준. 단위: 개사)				
리스크 구분			리스크 평가		리스크 식별		리스크 조치	
리스크 유형	리스크 수준	평가범위	비율	고위험 협력사	비율	사정/거래종료	비율	
경제적 리스크	윤리 및 반부패 원칙 위반	High	3,767	100%	0	0.00%	0	0.00%
	신용등급 등 재무구조 악화	Medium-high	3,767	100%	11	0.29%	11	0.29%
	협력사 평가점수 저조	High	3,767	100%	5	0.13%	5	0.13%
환경적 리스크	환경법규 위반	High	3,767	100%	0	0.00%	0	0.00%
	공사중 환경사고 발생	High	3,767	100%	0	0.00%	0	0.00%
	기타 환경적 리스크	Medium-high	3,767	100%	0	0.00%	0	0.00%
사회적 리스크	노동 및 안전 법규 위반	High	3,767	100%	0	0.00%	0	0.00%
	현장 안전사고 발생	High	3,767	100%	1	0.03%	1	0.03%
	기타 사회적 리스크	Medium-high	3,767	100%	1	0.03%	1	0.03%
계			3,767	100%	18	0.48%	18	0.48%

* 출처: A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국내B사는 협력사의 경제, 사회, 환경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회사 CSR 리스크 관리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있는데 일반경영 및 재무 분야의 평가 지표는 재무안전성 (자금유동성, 신용등급, 현금흐름 등)과 윤리경영 위반 이며, 환경경영 분야의 평가 지표는 환경사고이다. 현장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지표로는 산업재해율, 안전경영 인

중, 중대재해가 있다. 2020년 협력회사의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비율은 경제(재무분야) 리스크 6개사 (기업비율 0.7%) 였으며 환경 및 사회 분야 리스크 기업은 없었다.

국내 C사는 협력사의 선정 및 평가 시 경제, 환경, 안전, 사회적 리스크를 진단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신용등급 기준 미달이거나 부채비율 기준 이상일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는 환경관리 미흡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적 측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1명 이상 사망 등) 또는 안전 재해를 은폐할 경우, 사회적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장기 노임체불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종료한다. 경제, 환경, 안전, 사회적 리스크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협력사에게는 1년간 계약이행보증보험 부분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D사는 협력사 등록시 신용등급, 면허 보유 등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시스템에 협력사 등재가 가능하며, ‘협력사 완전 개방형 수시등록제’를 운영한다. 또한, 별로 공사 수행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협력/소통, 환경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항목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토건자재는 연 1회 이상 경영건전성(신용등급), 납기, 품질, 안전, 환경 등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 자재의 경우 프로젝트 별로 설계, 조달, 시공의 담당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신용등급의 하락, 평가 하위사의 경우 유관부서가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을 하고 문제 발생업체는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본 논문에서는 P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망 관리 현황<표12>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P사의 공급망 관리는 협력사 등록, 계약 이행에 대한 수행도 평가 및 사후 관리까지 3단계의 프로세스로 운영하고 있다.

〈표12〉 P 건설 협력사 공사 하도급 평가체계

구분	평가지표
1단계 등록	- 시공능력: 시평액 전국순위 - 공사실적: 공사실적, 매출비중, 주요건설사 실적 - 재무능력: 신용등급, 부채비율, 매출이익율, 현금흐름등급 - 경영일반: 매출/이익변동, 면허보유기간, 사업연수 *가감점: 당사실적, 안전보건, 문제발생,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2단계 수행도 평가	[분기 수행도 평가] - 착공관리: 시공계획서 일정, 충실도 - 품질안전관리 (품질) 대외지적건수, 부적합사항 발생건수, (안전) 불안전행동 지적 건수,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실적, 보건관리 상태 등 (환경) 환경교육 실적, 예방관리, 시정조치 등 - 공정관리: 계획공정달성도, 공사지연발생건수 등 - 현장관리: 자재/장비/노임지불, 협력업체소장평가 등 - 준공관리: 준공서류 충실도, 제출일정 등 [종합 수행도 평가] - 시공 수행도 평가, 계약실적, 낙찰실적, 당사 매출의존도 *가감점: 업무협조도, 안전환경, 성과공유, 민원, 체불발생, 하자관리 미흡 등
3단계 사후관리	부정당 제재기준: - 비윤리, 입찰담합, 불법행위, 안전사고 발생 시 등록취소 - 일정수준이상의 신용등급, 현금흐름, 부채율 미달시 등록취소 - 수행도 평가 열위, 임금체불 시 입찰제한

주) 평가비중은 공종, 설계 및 제작 등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1단계 등록 평가에서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및 공사실적을 보유하는 것을 기본 자격(1차 평가)으로 하여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고 신청 업체의 순위를 산정하여 공종별 T/O에 따라 등록 대상업체를 선정(2차 평가)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련 이슈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2차 평가까지 통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역량 실사평가를 통해 안전 관련 경영층의 의지, 안전조직 및 안전교육 등 안전시스템을 점검하여 통과되는 업체가 최종 등록을 할 수 있다.

2단계 수행도 평가는 크게 분기 수행도 평가와 종합 수행도 평가로 나뉜다. 분기 수행도 평가에서는 납기 관리 이외에 품질, 안전, 환경 관리에 대하여 반영한다. 한편, 종합 수행도 평가에서는 분기 수행도 평가의 결과 외에 계약 실적, 낙찰실적 및 매출의존도 등 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협조도, 문제 발생 여부 등은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3단계 사후관리에서는 ‘부정당 제재 기준’을 운영하여 부실공사, 하자 보수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 이외에도 입찰담합, 금품 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비윤리 및 불법행위,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등록 취소 조치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임금체불 발생한 경우, 수행도 평가결과가 열위인 업체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등록 취소에 이르는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외 종합건설사의 협력사 평가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부분의 건설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사항을 반영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공급망 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공급망 관리 체계에 있어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협력사의 평가 시 신용등급과 재무상태 등 경제적 측면, 환경 사고나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지 여부 등 환경적 측면, 재해율이나 중대재해 여부 등 현장 안전관리와 공급망 내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는지 등의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등록, 평가 및 모니터링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종합 건설사 공급망 관리체계는 ESG 성과관리 관점에서 볼 때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ESG에서는 비재무적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는데, 현재 협력사 평가 체계에서는 여전히 등록단계부터 신용등급, 부채비율, 낙찰률 등 재무 지표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ESG평가를 개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전 재해 발생, 환경 사고, 노임 체불 등 중대한 ESG 리스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공급망에서 퇴출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문제 발생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직접 드러나지 않은 공급사의 ESG 관련 이슈는 종합건설사에서 인지하기 어려우며 ESG

관련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가 아닌 일부 단편적인 지표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협력사의 전반적인 ESG 수준을 알기 어렵고 협력사의 ESG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역량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비재무지표를 평가에 도입하고, 경영전반의 통합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ESG가 강화된 ‘협력사 ESG 평가지표’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

Ⅲ. 실증 연구

3.1 주요 ESG 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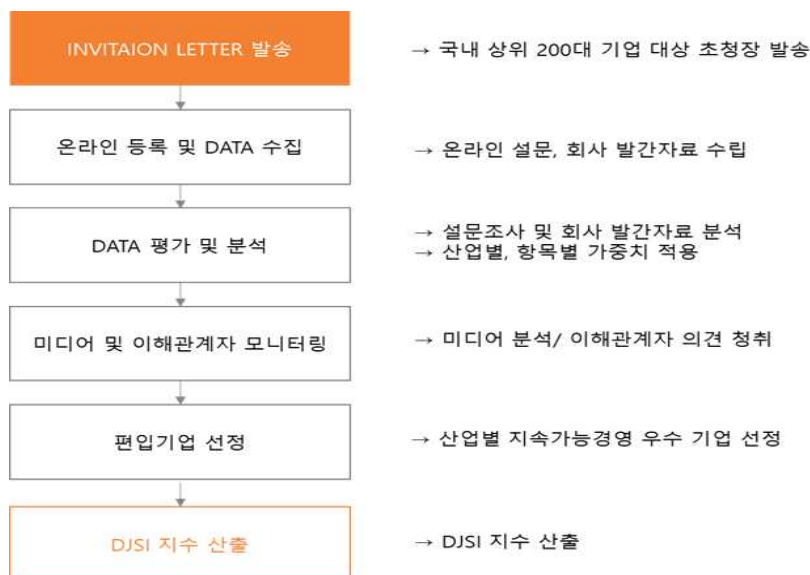
3.1.1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ESG 평가지표 중 하나는 DJSI이다. DJSI는 미국의 금융정보사, 언론서비스 회사로 전세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다우존스가 스위스의 지속가능경영평가 전문 업체인 로베코샘(Robeco SAM)이 공동으로 개발한 주가지수로 1999년 처음 도입되었다. 기존의 재무적 지표 외에 지배구조의 건전성, 사회공헌 등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우량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된 이 지표는 기업 가치 판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오늘날 가장 권위 있는 ESG 평가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DJSI 평가는 지역에 따라 이루어지며 세계 시총 상위 2,500개 기업을 평가하는 DJSI World가 대표적이고 권역별 시총 상위 600~800개 기업을 평가하는 DJSI Emerging Markets, DJSI Asia/Pacific, DJSI Europe, DJSI North America가 있다. 호주, 한국, 칠레의 경우 국가 단위 Index를 운영하고 있다. DJSI Korea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참여로 2005년 도입되었으며 매년 국내 시총 상위 200개 기업을 평가한다. DJSI 평가 점수 상위 10~30%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우수 기업으로 인정 받고 Index에 편입되어 우량 종목으로 관리된다.

DJSI 평가는 설문을 통해 진행된다. 평가 프로세스는 모든 Index가 동일하며 <그림 8>과 같다.

〈그림8〉 DJSI Korea 평가 프로세스



*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DJSI 평가 설문은 공통 항목과 산업별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항목들은 경제/환경/사회적 측면의 이슈를 반영하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DJSI 평가 설문의 주요 항목 및 비중은 〈표13〉과 같으며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바뀔에 따라 매년 일부분씩 갱신된다.

〈표13〉 DJSI 평가 주요 항목 및 비중

경제적 측면	지배구조 (6.0%)	리스크 관리 (6.0%)	윤리강령 (6.0%)	산업별 항목		
환경적 측면	환경 보고서 (3.0%)	산업별 항목				
사회적 측면	인적자원 개발 (5.5%)	인적자원 보유 (5.5%)	노동지표 (5.0%)	기업시민 의식 (3.0%)	사회 보고서 (3.0%)	산업별 항목

*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3.1.2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Rating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사회적 책임 투자 이행과 지속가능 우수 기업 선별을 위해 2007년 도입한 MSCI ESG Rating은 DJSI와 더불어 가장 공신력 있는 ESG 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20년 기준 8,500개 이상의 상장 기업들이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은 ESG Leaders, ESG Focus, ESG Universal 등의 Index에 편입된다.

MSCI ESG Rating의 평가는 DJSI와 달리 대상 기업 설문이 아닌 공개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35개의 Key Issue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집중 분석하는데, 지배구조 분야의 Key Issue는 모든 산업이 동일하지만 환경과 사회 분야의 경우 산업군별 특화된 Issue를 평가한다. <그림9>는 MSCI ESG Rating의 음료 제조 산업 부문 Key Issue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9> MSCI ESG Rating Key Issue (Soft Drinks Sub Industry)

MSCI ESG Score									
Environment Pillar				Social Pillar				Governance Pillar	
Climate Change	Natural Capital	Pollution & Waste	Env. Opportunities	Human Capital	Product Liability	Stakeholder Opposition	Social Opportunities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Behavior
Carbon Emissions	Water Stress	Toxic Emissions & Waste	Clean Tech	Labor Management	Product Safety & Quality	Controversial Sourcing	Access to Communication	Board	Business Ethics
Product Carbon Footprint	Biodiversity & Land Use	Packaging Material & Waste	Green Building	Health & Safety	Chemical Safety	Community Relations	Access to Finance	Pay	Tax Transparency
Financing Environmental Impact	Raw Material Sourcing	Electronic Waste	Renewable Energy	Human Capital Development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ccess to Health Care	Ownership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Supply Chain Labor Standards	Privacy & Data Security		Opportunities in Nutrition & Health	Accounting	
					Responsible Investment				
					Insuring Health & Demographic Risk				

 Key Issues selected for the Soft Drinks Sub Industry (e.g. Coca Cola)
  Universal Key Issues applicable to all industries

* 출처 : MSCI <https://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esg-ratings/esg-ratings-key-issue-framework>

<그림9>의 붉은 색 항목은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ey Issue이고 회색은 제조업의 Key Issue를 나타낸다. 점선 테두리는 제조업 중에서도

음료 분야에 특화된 Key Issue를 뜻한다. <그림9>를 통해 알 수 있듯 지배구조 분야는 이사회, 임금, 비즈니스 윤리, 세무 투명성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며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자연자본, 공해와 폐기물, 환경적 기회 요인 관련 산업별 Key Issue를, 사회 분야는 인적 자산, 제품 책임, 이해관계자 반대, 사회적 기회 요인에 관련된 산업별 Key Issue를 평가한다.

MSCI ESG Rating 평가 점수는 7등급으로 구분되며, AAA, AA 등급을 획득한 기업은 Leader, A, BBB, BB 등급은 Average, B, CCC 등급은 Laggard로 분류된다. Leader 등급 획득 시 MSCI ESG Leader Index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MSCI ESG Ratin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림10> MSCI ESG Rating 평가 등급



* 출처 : MSCI <https://www.msci.com/our-solutions/esg-investing/esg-ratings>

3.1.3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및 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국제기구로 1997년 설립되었다. 1989년 미국 유조선 좌초로 원유 4만 톤이 알래스카 해안에 유출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기업의 환경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환경 관련 정보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환경단체인 세리즈(CERES)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와 협약을 맺고 GRI를 설립했다.

GRI Standards는 세계 최초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이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다. 현재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

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곳은 유럽 일부 국가에 국한되지만 사회적 기대 수준 및 이해관계자 요구 충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를 포함하여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기업의 대다수가 GRI Standards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GRI Standards에 포함된 다수의 ESG 성과 지표들을 기업의 ESG 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GRI Standards는 3~4년에 한 번씩 개정되며 최근 개정은 2021년 1월에 이루어졌다. GRI Standards는 크게 Universal Standards, Sector Standards, Topic Standards로 구성된다. Universal Standards와 Topic Standards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Sector Standards는 2021년 신설되었으나 현재 Oil&Gas Sector를 위한 규정만 제공된다.

Universal Standards는 조직 프로필, 전략, 거버넌스 등 일반적인 공시 대상 항목들을 규정하며 Topic Standards는 특정 이슈별로 제시해야하는 정보와 지표들을 규정한다. Topic Standards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은 <표14>와 같다.

<표14> GRI Topic Standards 구성 주요 항목

GRI 200 경제	201 경제성과
	202 시장지위
	203 간접 경제효과
	204 조달
	205 반부패
	206 경쟁저해행위
GRI 300 환경	301 원재료
	302 에너지
	303 용수
	304 생물다양성
	305 배출
	306 폐수 및 폐기물
	307 환경법규 준수
	공급업체 환경평가
GRI 400 사회	401 고용
	402 노사관계
	403 산업안전보건

	404 훈련 및 교육
	405 다양성과 기회 균등
	406 차별금지
	407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408 아동 노동
	409 강제 노동
	410 보안 관행
	411 원주민 권리
	412 인권 평가
	413 지역사회
	414 공급업체 사회 평가
	415 공공정책
	416 고객 안전보건
	417 마케팅 및 라벨링
	418 고객 개인 정보보호
	419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 출처 : GRI Standards 자료집을 재구성

3.1.4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tandards

SASB는 지속가능성 회계 표준 개발을 위해 2011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다. 초기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재무 정보 공시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 77개 산업군별 지속가능 보고 표준인 SASB Standards를 발표하며 GRI Standards를 보완할 글로벌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블랙록의 CEO 래리 핑크가 투자 대상 기업들에게 SASB 기준 보고서 공시를 요구함에 따라 SASB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 보고서 작성 기업들은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SASB Standards는 다양한 산업군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제시한다는 점과 비재무적 요인의 재무적 영향 측정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GRI Standards를 보완하는 ESG 성과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표15〉는 77개 산업군 중 Engineering & Construction Services에 대한 SASB Standards를 나타낸다.

〈표15〉 SASB Standards(Engineering & Construction Services Sector)

주제	성과 지표	측정방법	단위
프로젝트 개발의 환경적 영향	환경 규제 미준수 건수	정량	수치
	프로젝트 진행 관련 환경리스크 측정 및 관리 절차	논의와 분석	n/a
구조적 완전성 및 안전	하자와 안전과 관련된 재작업 비용	정량	금액
	하자, 안전 관련 사건의 벌금, 합의금 등 법적 비용	정량	금액
인적자원의 보건과 안전	재해율 및 사망률	정량	비율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의 기후변화 영향	Hydrocarbon 관련된 프로젝트와 재생 에 너지 프로젝트의 수주 잔고	정량	금액
	Hydrocarbon 관련된 프로젝트와 연관된 취소 잔고금액	정량	금액
	기후변화 완화와 연관된 비에너지 프로젝 트의 잔고	정량	금액
빌딩, 인프라의 라이프사이클 영향	지속가능성 기준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확정된 프로젝트 수 및 그러한 인증 을 받고자 하는 프로젝트 수	정량	수치
	운영 단계에서의 에너지, 물의 효율성을 프로젝트 기획과 설계에 반영하는 프로세스	논의와 분석	n/a
비즈니스 윤리, 입찰 청렴성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의 하위 20 위 순위를 가진 국가에서의 진행 프로젝 트 수 및 수주 잔고	정량	수치, 금액
	뇌물수수, 부패, 반경쟁적 관행과 관련된 벌금 또는 합의금 등 법적비용	정량	금액
	부패, 뇌물수수, 프로젝트 입찰 절차에서 의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과 관 행	논의와 분석	n/a

* 출처 : SASB

3.1.5 KCGS(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KCGS는 기업 지배구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가,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3년 설립되었다. 2003년부터 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환경 및 사회 부문을 추가하여 ESG 통합 평가를 수행 중이다. 매년 900여개 국내 상장 기업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상위 150개 기업은 KRX ESG Leader 150에 편입된다.

KCGS ESG 평가는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독보적 위상을 가지고 있

는 ESG 평가 지표이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를 위해 KCGS ESG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KCGS가 해외 시장에서 DJSI 및 MSCI와 같은 수준의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나, KCGS ESG 평가는 국내 법규 및 제도, 국내 기업들의 실정이 잘 반영된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ESG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11>은 KCGS ESG 평가 모형을 나타낸다.

<그림11> KCGS ESG 평가 모형

- 평가 모형 구성 및 개선 작업을 위해 KCGS ESG 모범규준*과 국내 법·제도 및 국제 규범을 활용
- 평가 모형의 지속적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평가 체계를 고도화

평가영역	평가모형모델	KCGS모범규준	법·제도·규범
 환경	♦ 경영프로세스 모델 • 업종에 따른 환경 환경위험관리 및 성과 평가 고려 • 산업별 환경 민감도를 상·중·하로 구분하여 구성 • 환경경영 체계, 성과, 이해관계자 대응 수준 판단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ISO 14001 및 환경표지·환경인증제도 •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TCFD) 등
 사회	♦ 이해관계자 모델 • 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형성한 대상에 중점 • 산업 분류기준인 WICS 중분류로 분리하여 산업별로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사회적책임경영 이슈 고려	리더십과 거버넌스 비재무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회적 책임 세계 표준 (ISO 26000) •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 UN 국제 인권 선언 및 OECD 인권 실사 지침 등
 지배구조	♦ 통제기능 모델 • 지배구조가 작동하기 위한 주요 장치별 분류 • 일반 상장사 및 금융회사 특화 지배구조 요건 고려 • 자산 규모 및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 설치 여부, 세부 금융업권 특성 고려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 소통	•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 영국 FRC 및 일본 JPX 기업지배구조 코드 • ICGN 글로벌 지배구조 원칙 •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 지배구조 원칙 등

* 출처 : KCGS

3.1.6 종합

지금까지 다수의 국내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 ESG 지표들로 DJSI, MSCI ESG Score,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KCGS ESG 평가를 살펴보았다. 각 기관들이 제시하는 평가 프로세스와 평가 기준, 세부 지표들은 모두 상이하다. 그러나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분야별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핵심 이슈와 평가 항목은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표16>은 앞서 살펴본 5개 ESG 평가 지표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주요 이슈와 평가 항목이다.

〈표16〉 ESG 평가 주요 이슈 및 항목

분야	주요 이슈	평가 항목
E	친환경	• 환경경영 전략 • 기술개발 및 인증 • 환경법규 준수 • 유해물질 관리
	기후변화	• 기후변화 전략 •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기후변화 영향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소비 및 감축 • 신재생 투자
	자원순환	• 원재료 재활용, 폐기물 배출 및 저감 • 용수 관리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보존 • 생물다양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
S	인권	• 인권 정책 •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노동	• 고용 • 교육훈련 • 노사 관계 • 복리후생
	다양성	•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안전보건	• 안전 보건 전략 및 거버넌스 • 부상 및 질병 관리
	지역사회	• 사회공헌 정책 및 프로그램 •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공급망	• 공급망 관리 전략 • 공급망 위험 관리 • 공급망 관리 투명성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고객	• 고객만족도 관리 • 제품 및 서비스 품질
G	지배구조	• 이사회 구조 및 운영 실태 • 주주 의결권 및 배당
	리스크 관리	• 리스크 관리 조직 •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리스크 관리
	윤리	• 행동규범 및 관련 시스템 운영 • 반부패 정책 운영 및 교육 훈련
	보안	• 보안 전략, 프로세스, 인프라

3.2 건설산업의 ESG 중대 이슈

3.1.1 중대성 평가의 활용

GRI Standards에 따라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은 보고서 작성에 앞서 중대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중대성 평가는 지속가능성에 연계된 다양한 이슈 중 각 기업의 내부 여건 및 이해관계자 요구에 따라 중대한 위기 및 기회 요인이 되는 이슈를 선별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과 전문 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할 ESG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 각각의 기회 확보와 리스크 회피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중대성 평가를 추진하는 프로세스나 방식은 각 회사의 대내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사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회사의 중대한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ESG 전담조직이 주관하여 중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대성 분석은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글로벌 ESG 표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조사 및 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11일에서 17일까지 임직원, 공급사/협력사, 고객, 정부/투자자, 지역주민, 언론 환경단체 등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15개의 유효 응답을 수집하였다.

중대성 분석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1단계로 기업의 현황 파악, 언론 이슈 파악, 벤치마킹 기업의 중대 이슈 파악, ESG 관련 국제 표준을 파악하여 18개의 중대 이슈 풀을 구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ESG 리스크에 대한 ‘발생가능성 (Likelihood)’ 와 ‘영향력(Impact)’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생가능성’ 분석은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서 요구/발생하는 이슈를 ① 미디어 분석과 ②이해관계자의 발생가능성 인식도를 통해 조사하여 도출하였고, ‘영향력’ 분석에서는 KCGS, DJSI, MSCI, SASB 등 ①ESG 표준 분석 및 ②벤치마킹 기업의 중대이슈 반영도, ③이해관계자의 영향력 인식도를 종합하여 산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분석한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Y축

으로 리스크 ‘영향력’을 X 축으로 하여 최종 중대 이슈 매트릭스를 도출하였다.

중대성 평가의 X축과 Y축의 내용은 비즈니스의 중요도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 (중요도), 대외 영향도, 대내 영향도 등 기업의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

〈표17〉 중대성 평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 예시 (P사, 경제 분야)

리스크 항목 *[이슈명] 이슈를 둘러싼 리스크 항목	리스크 평가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윤리/반부패]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예: 금품 수수, 특수 거래, 공금 횡령 등) 발생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영향					
[혁신기술] 기술 혁신 가속화로 연구 개발 지출액 상승, 신성장 동력에 대한 요구 증대 등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영향					
[제품책임] 제품품질 요구수준 상향, 제품 안전 사고 발생, 제품안전성 요구수준 증대 등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영향					
[공급망] 공급망 내 중요한 변화 발생, 협력사 법규 위반 발생, 현지 공급업체 선정 어려움 등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영향					
[공정경쟁]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내부거래, 하도급거래 등)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영향					
[이사회] 거버넌스 투명성 요구 강화, 독립성/전문성을 겸비한 이사회 구성원 확보의 어려움 등	발생 가능성					
	발생 시 영향					
[주관식 의견] 이외 P건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잠재 리스크와 기회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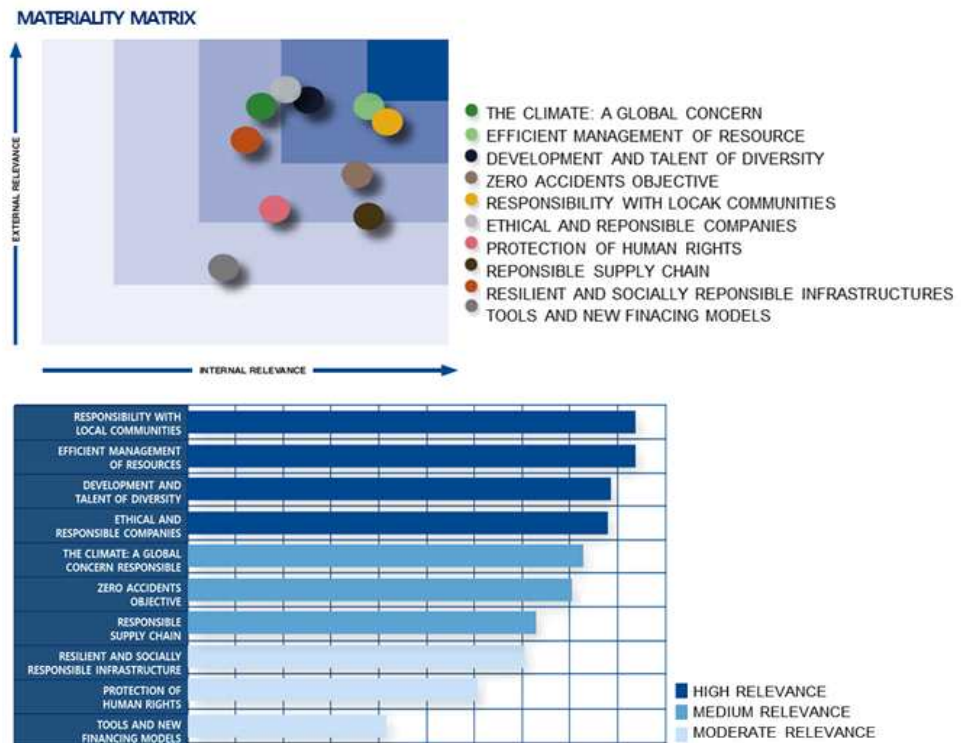
* 출처 : P사 보고서

기존의 글로벌 ESG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건설산업에 특화된 협력사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기관들이 제시하는 이슈와 평가 항목 중 건설산업에 유의미한 것들을 선별해야 한다. 이에 건설산업의 ESG 중대 이슈를 선별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기업으로 해외의 경우 DJSI 및 MSCI ESG Rating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국내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5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3.1.2 해외 건설기업의 ESG 중대성 평가 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사 중 하나인 E사는 사업보고서와 지속가능 보고서가 결합된 통합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그림12>는 E사의 2020년 통합보고서에 수록된 중대성 평가 결과이다.

<그림12> 해외 건설기업 E사 중대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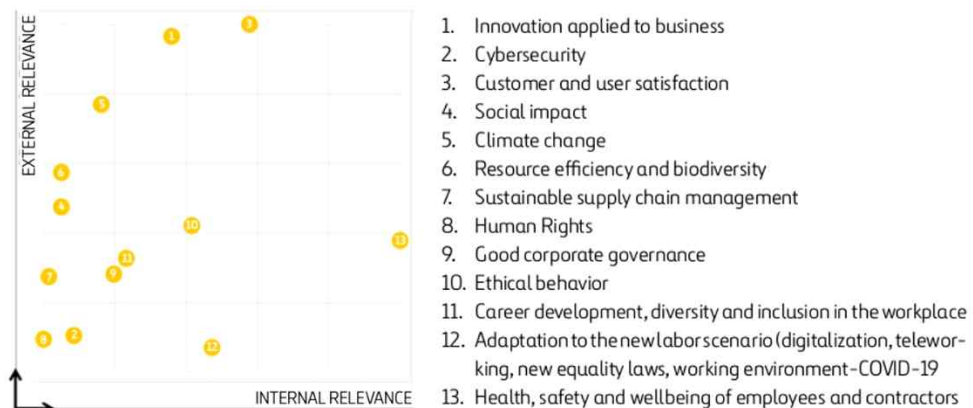


* 출처 : E사 통합보고서, 2020

〈그림12〉 상단 중대성 매트릭스에서 가로축은 내부 중대성, 세로축은 외부 중대성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중대성 평가 결과는 이와 같이 대내외 관점을 통합한 매트릭스 형태로 도출된다. 하단의 그래프는 매트릭스로 도출된 중대 이슈를 순위별로 나열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역 사회 책임이 가장 중대한 이슈로 지적되었으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 성장과 다양성 존중, 윤리 경영이 뒤를 잇는다.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유럽 건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종합건설사 F사는 2020년 〈그림13〉과 같은 중대성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그림13〉 해외 건설기업 F사 중대성 평가 결과



* 출처 : F사 통합보고서, 2020

F사는 13건의 중대 이슈를 선정하였으며 비즈니스 혁신, 사이버보안, 고객 만족, 사회적 가치, 기후 변화, 자원 효율 및 생물다양성 등이 상위에 위치한다.

싱가포르의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기업인 G사는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우수 기업으로 꼽히며 2010년대 이후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역량 육성을 통해 현재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건설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그림14〉 해외 건설기업 G사 중대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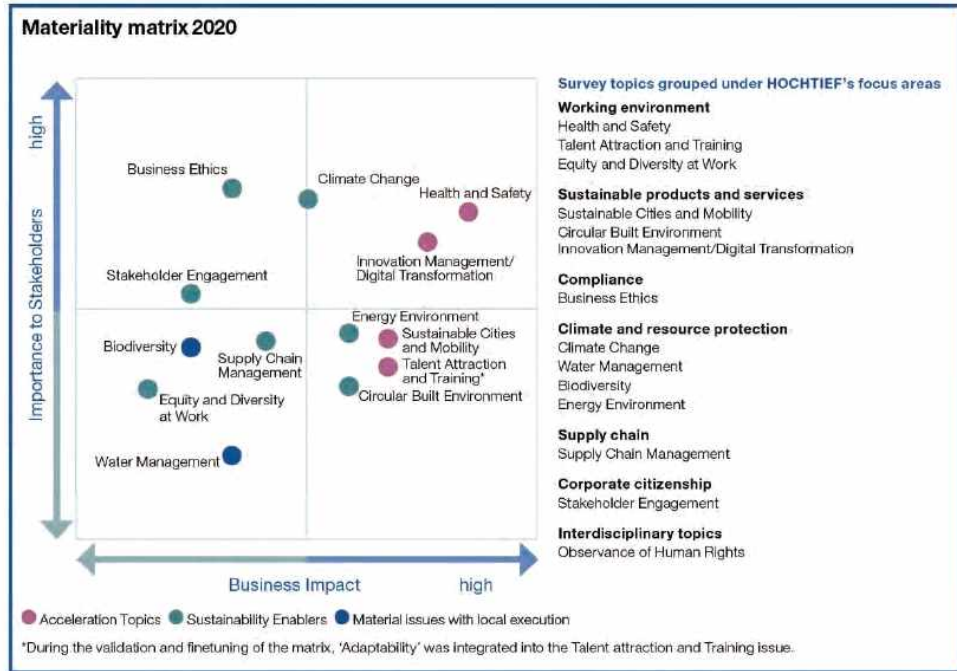


* 출처 : G사 지속가능 보고서, 2021

G사는 ESG 우수 기업에 걸맞게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다양한 중대 이슈를 발굴하고 지속가능 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각 중대 이슈를 Highly critical, Critical, Moderate의 3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Highly critical로 분류된 중대 이슈는 5개로 보건안전 및 웰빙, 혁신, 제품/서비스 품질 및 책임,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 이에 해당된다.

H사는 글로벌 Top 5에 속하는 대형 건설사로 ESG 성과 또한 우수하여, ESG 평가 점수 상위 10%만 포함되는 DJSI World Index에 편입되어 있다.

〈그림15〉 해외 건설기업 H사 중대성 평가 결과



* 출처 : H사 통합 보고서, 2020

〈그림15〉를 통해 알 수 있듯 H사는 보건 및 안전을 가장 중요한 ESG 중대 이슈로 꼽고 있다. 그밖에도 혁신 경영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지속가능 도시 및 모빌리티 등 다양한 중대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

주택 개발 및 건설 전문 기업인 영국의 I사는 MSCI ESG Rating 최고 등급(AAA)를 획득한 지속가능성 우수 기업이다. 특히 ESG 관련 정보 공개 수준이 선진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 보고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결과, 기후 변화 대응 결과, 성별 임금 격차 등 세분화된 다양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세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중대성 평가 결과 또한 지속가능 보고서 또는 통합보고서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게 ‘What Matters Most?’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며 내용은 〈그림 16〉과 같다.

〈그림16〉 해외 건설기업 I사 중대성 평가 결과

Our material issues

As a 5-star housebuilder we have a very good understanding of what it takes to be a responsible business in our sector. We know that listening to stakeholders is important and every year we ensure there are numerous opportunities to gather

their feedback. In 2019 we undertook a comprehensive materiality process to understand which sustainability issues matter most to our stakeholders.

We consulted more than 400 people using online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see page 4 for more information]. As a result, we have identified 12 material issues that are a priority to address. These have been categorised within the five focus areas of our sustainability strategy.

Our focus areas	The 12 material issues
Keeping people safe and healthy	1 Our approach to health and safety 2 Promoting the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of our employees
Innovative, efficient construction	3 The energy use and carbon emissions of our operations 4 Waste created by our operations 5 Our innovation
Attracting, inspiring and retaining people	6 How we recruit and retain the best talent 7 The development and training of our employees 8 How we are creating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9 How we are engaging with our employees
Sustainable places to live	10 The lifetim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homes and buildings we build 11 Affordability of the homes we build
Sustainable and responsible sourcing	12 Having an energy efficient and low carbon supply chain

* 출처 : I사 What Matters Most?, 2019

I사는 4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을 포함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12개의 중대 이슈를 선정했다. 건강과 안전, 신체적/정신적 웰빙,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폐기물, 혁신 등 사회, 환경, 경제 분야 다양한 이슈들이 폭넓게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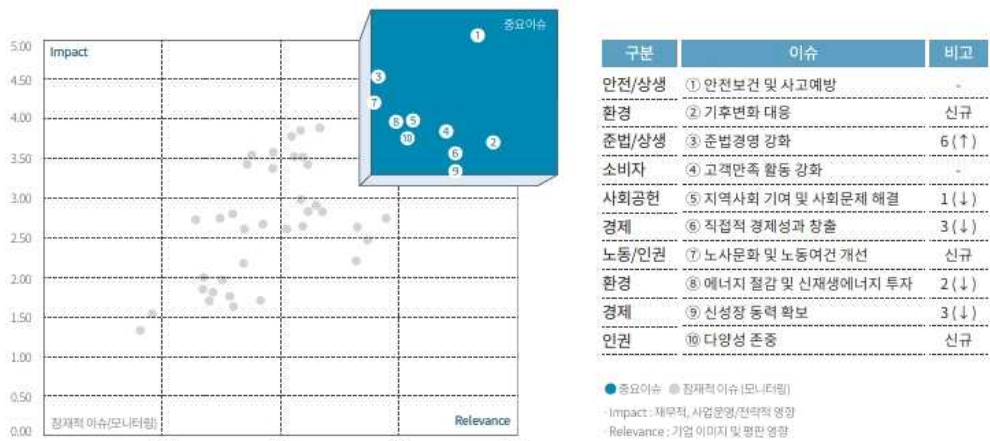
3.1.3 국내 건설기업의 ESG 중대성 평가 결과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ESG 대응은 해외 기업 대비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지속가능 보고서 등 비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보고서 발간 기업이 2020년 기준 100여 곳에 지나지 않아(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 산업 전반 ESG 확산을 위한 사례 수집 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며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ESG 대응을 위한 준비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건설산업도 이에 동참하고 있어 시

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기업들 대다수는 지속가능 보고서 및 통합보고서를 발간 중이거나 발간 준비 중이다.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1위인 J사는 국내 건설기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 시장에 진출 중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추진 중이며 국내 기업으로는 다소 이른 2010년 전후부터 매년 지속가능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J사의 2021년 중대성 평가 결과는 <그림17>과 같다.

<그림17> 국내 건설기업 J사 중대성 평가 결과



* 출처 : J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0

<그림17>을 통해 알 수 있듯 J사는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후 변화 대응, 준법경영 강화, 고객만족 활동 강화 등의 중대 이슈를 선정했다.

A사의 경우 총 42개에 달하는 지속가능성 이슈 전체를 공개하고, 이를 중대 이슈, 핵심 이슈, 일반 이슈로 구분하여 모든 이슈에 대한 관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림18>은 B사의 중대 이슈를 포함한 모든 지속가능성 이슈를 보여준다.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중에서 A사가 꼽은 가장 중대한 이슈는 안전 보건 관리 및 사고 예방, 신성장 사업 육성 및 미래 유망 사업 발굴, 고객 만족 및 고객 향상 가치 창출, 경영성과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창출 등이

다. A사의 경우 다른 기업들에 비해 사회, 환경, 지배구조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 중대 이슈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국내 건설기업 A사 중대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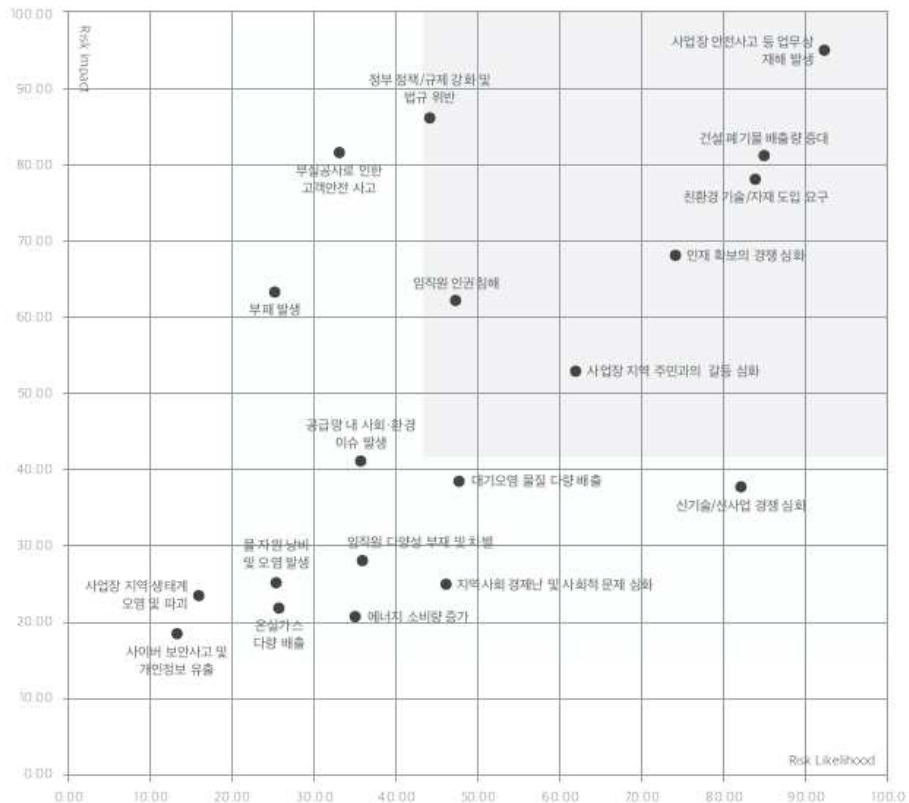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이슈	중대성
2 신성장사업 육성 및 미래유망사업 발굴	중대 이슈
1 고객만족 향상 및 고객가치 창출	중대 이슈
4 경영성과 향상 및 경제적 가치 창출	중대 이슈
5 친환경 기술, 설계 및 시공 경쟁력 제고	중대 이슈
6 제품/서비스/품질 혁신	중대 이슈
21 해외사업 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	핵심 이슈
22 브랜드 관리 및 시장 선도	핵심 이슈
23 청정기술 혁신 및 투자 강화	핵심 이슈
20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	핵심 이슈
13 원가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향상	일반 이슈
31 정보 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일반 이슈
42 인프라 건설을 통한 사회적 기여	일반 이슈
7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중대 이슈
10 친환경경영 추진 및 환경영향 저감	중대 이슈
18 비산먼지 관리 및 발생 저감	핵심 이슈
20 온실가스 관리 및 배출 저감	핵심 이슈
2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확대	핵심 이슈
34 에너지 관리 및 사용 저감	핵심 이슈
25 전략적 기후변화 대응	핵심 이슈
24 소음진동 관리 및 저감	일반 이슈
26 수질 관리 및 용수 저감	일반 이슈
27 오염토양 관리 및 적정처리	일반 이슈
30 자재 및 자원 사용 저감	일반 이슈
40 사업추진 시 생물다양성 보호	일반 이슈
1 안전보건 관리 및 사고 예방	중대 이슈
3 협력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중대 이슈
11 공정한 성과평가 및 보상	중대 이슈
17 협력사 리스크 평가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중대 이슈
13 사업장(현장)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	중대 이슈
16 임직원 다양성 존중 및 평등기회 보장	핵심 이슈
20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핵심 이슈
33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 확립	일반 이슈
37 임직원 경력개발 지원 및 전문성 강화	일반 이슈
3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일반 이슈
47 지역사회 기여 및 재난재해 구호	일반 이슈
8 윤리·준법경영 추진 및 부패 방지	중대 이슈
11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강화	중대 이슈
12 공정거래 준수 및 공정경영 정착	중대 이슈
10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핵심 이슈
17 지배구조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핵심 이슈

* 출처 : A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의 B사는 통합보고서를 발간 중이며 중대성 평가 결과는 <그림19>와 같다.

<그림19> 국내 건설기업 B사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평가 MATRIX



* 출처 : B사 통합보고서, 2021

B사는 중대성 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임팩트가 높다고 판단된 7개 이슈를 Top 7 중대 이슈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업장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발생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하였다.

P사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토대로 최근 국내 건설산업의 ESG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P사가 발간한 2021기업시민보고서는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지속가능보고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P사의 기업시민보고서에 담긴 중대성 평가 결과는 <그림20>과 같다.

〈그림20〉 국내 건설기업 P사 중대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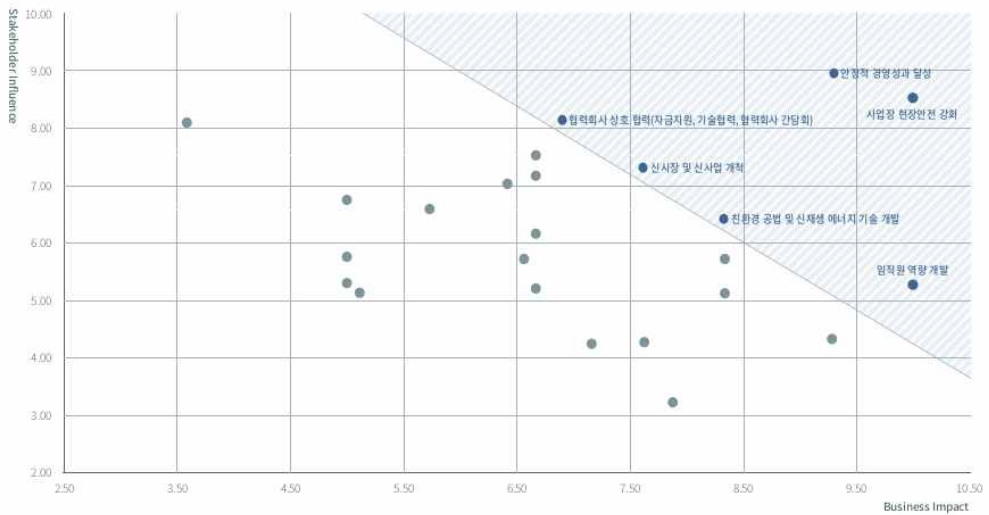
* 출처 : P사 기업시민보고서, 2021

〈그림20〉과 같이 P사는 총 18개의 중대 이슈를 발굴하여 공개했으며,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에 따라 핵심대응영역, 전략적대응영역, 중장기대응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핵심대응영역에 속하는 중대 이슈로는 안전보건, 폐수 및 폐기물, 제품 책임, 임직원, 기후변화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C사의 2021년 중대성 평가 결과는 〈그림21〉과 같다.

〈그림21〉 국내 건설기업 C사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결과



* 출처 : C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1

타사들과 달리 C사는 보고 경계에 해당되는 상위 6개 중대 이슈만을 공개했다. 공개된 중대 이슈는 안정적 경영성과 달성, 사업장 현장안전 강화, 협력회사 상호 협력, 임직원 역량 개발 등이다.

3.1.4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에 활용할 중대 이슈 선정

해외 및 국내의 주요 건설기업들이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성 중대 이슈를 통해 협력사 ESG 평가에 활용할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자 한다. 각 기업들이 선정한 이슈는 내용상 유사성이 있음에도 용어와 범주 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표17〉의 ESG 평가 주요 이슈 및 항목에서 제시된 용어와 범주에 따라 각 기업들의 중대 이슈를 치환하여 각 이슈들의 포함 회수와 비중을 〈표18〉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18〉 ESG 주요 이슈에 따른 국내,외 건설기업의 중대성 분석 결과

분야	중대 이슈	해외 기업		국내 기업		전체	
		포함 회수	비중	포함 회수	비중	포함 회수	비중
E	친환경	1	2%	9	24%	10	12%
	기후변화	7	16%	6	16%	13	16%
	자원순환	4	9%	2	5%	6	7%
	생물다양성	1	2%	0	0%	1	1%
	소계	13	30%	17	45%	30	37%
S	인권	2	5%	1	3%	3	4%
	노동	5	12%	4	11%	9	11%
	다양성	1	2%	1	3%	2	2%
	안전보건	6	14%	5	13%	11	14%
	지역사회	3	7%	3	8%	6	7%
	공급망	4	9%	3	8%	7	9%
	고객	3	7%	2	5%	5	6%
	소계	24	56%	19	50%	43	53%
G	지배구조	1	2%	0	0%	1	1%
	윤리	3	7%	2	5%	5	6%
	보안	2	5%	0	0%	2	2%
	소계	6	14%	2	5%	8	10%

〈표1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해외와 국내 기업 모두 S 분야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다. E 분야는 37%이며 G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S 분야의 핵심 이슈는 안전보건(14%), 노동(12%), 공급망(9%) 등으로 나타나며, E 분야는 기후변화(16%), 친환경(12%), 자원순환(7%) 순이다. G 분야에서는 윤리(6%)가 핵심 이슈로 꼽혔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중대 이슈 순위는 대체로 유사하나, 국내 기업의 경우 친환경 이슈의 포함 비중이 24%로 높은 반면 G 분야의 비중이 총 5%로 해외 기업 대비 낮다. 해외 기업은 E 분야의 기후변화(16%)와 자원순환(9%)의 비중이 높고 친환경은 2%로 낮다. G 분야의 비중은 14%로 지배구조, 윤리, 보안 등 국내 기업에 비해 다양한 이슈가 포함되었다.

총 10개 기업의 중대 이슈에 대한 분석을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에 적용할 지표 도출에 활용함에는 다소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나, 대상 기업들의 산업 전반과 ESG 경향 속에서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본 분석 활용의 의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3.3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 지표 도출

3.1.1 지표 Pool

주요 건설기업 중대성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도출한 건설산업의 14대 ESG 중대 이슈 영역 관련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지표들로 지표 Pool을 구성하였다. Pool에 포함된 지표의 수는 총 93개로 <표 19>과 같다.

<표19> 건설산업 ESG 중대 이슈별 평가 지표 Pool

분야	중대 이슈	지표 Pool	
		지표	개수
E	친환경	- 공급망 내 환경평가 및 조치 - 녹색인증 획득(환경관련 특허) - 유해물질 배출 건수 및 유출량 - 친환경 건설사업 참여 - 친환경 원자재 구매 - 환경 조직운영 - 환경관련 임직원 교육 - 환경방침 수립 및 공개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법규 및 규정 위반 제재건수	9
	기후변화	- 기후변화 성과관리 - 기후변화 전략 - 신재생 에너지 사용 또는 개발여부 - 에너지 소비 감축 - 에너지 소비량 - 오염물질 배출 - 온실가 배출 집약도 -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9
	자원순환	- 물 소비 - 용수 재활용 - 폐기물 관리 적정성 -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재활용 실적	5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 관리 -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2
S	인권	- 아동노동, 강제노동 - 인권 위협관리 및 고충처리 채널 운영 - 인권관련 임직원 교육 -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정책 수립 - 차별건수 및 관련 시정조치	6
	노동	- 고용유지 및 복지증진 시설 투자 -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 근로조건 준수 (근로계약서/최저임금/근로시간)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복지수준 - 신규채용(고용증가율) 및 이직자 수 비율 - 임금채불	10

		• 임직원 교육 투자 (1인당 교육비용) • 임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간) •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비중	
	다양성	• 성별 기본급 및 보상급 비율 • 임직원 내 여성비율	2
	안전보건	• 개인보호장비 지급 • 근로자 건강 증진 (작업장 보건서비스) • 산업재해 발생 • 안전경영 목표 및 방침 • 안전관련 교육 • 안전관리자 보유 • 안전보건 조직 구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안전보건관련 포상현황 • 안전시설 투자 • 위험인식, 위험 평가 및 사고조사 • 중대재해 발생 • 현장별 안전점검	13
	지역사회	• 기부금 • 사회공헌 정책 •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고용	4
	공급망	• 공급망 관리 전략 • 공급망 관리 투명성 • 공급망 위험 관리	3
	고객	• KS 품질인증 • 고객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 운영 • 고객만족도 측정 • 업종별 품질관리 인증 • 제재현황 및 시국세 체납 • 제품 안전보건 평가 • 판매처 집중 및 신용도 • 품질경영시스템	8
G	지배구조	• 감사기구 구성 • 독립된 감사업무 부서 유무 • 리스크 파악 및 관리 절차 • 비재무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외 검토 여부 • 사외이사 비율(유무) • 외부감사 여부 (외감여부&감사의견) • 이사보수의 정책 • 이사회 다양성 • 이사회 산업경력 (대표이사 동업계 경력) • 이사회 참석률 • 이사회 평균 임기 • 지배주주 지분율 • 최대주주 변경	13
	윤리	• 반부패 발생시 내부절차 및 조치 • 반부패 방지 정책(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운영 • 반부패 정책 관련 교육훈련 • 반부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벌금, 합의금) • 자금 유출비율 •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거래 집중도	6
	보안	• 개인 정보보호 정책 수립 • 정보 보안 정책 및 프로세스 • 정보/사이버 보안 전략 및 지배구조	3

3.1.2 지표 검증을 통한 가용 지표 도출

주요 기관들이 제시하는 ESG 평가 지표는 대체로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국내 건설산업 협력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들도 상당수이다. 따라서 93개 지표 Pool에 속하는 각 지표들을 적합성과 측정성의 관점에서 검증하여 가용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건설 핵심 공종별 우수 협력사 6개사를 대상으로 가용 Data 분석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대상은 우수 협력사 47개사 중 6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인터뷰는 2021. 3. 19 ~ 2021. 4. 2일까지 각 사 실 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93개 지표들에 대한 평가문항을 작성하여 업체들의 응답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논의를 통해 각 지표에 대한 적합성과 측정성에 대한 판단을 확정하였다. 지표별 평가문항은 3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는 ‘해당 여부’, 2단계는 ‘계획 또는 발생 가능성’, 3단계는 ‘관련 Data 확보 및 제공 가능성’이다.

해당 여부는 지표가 규정하는 업무나 활동을 추진하고 있거나 결과물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다. 해당 여부가 없는 경우에는 2단계 계획 또는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여 1, 2단계 응답 중 하나의 긍정 응답이 있는 경우 적합성이 검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반부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자금 유출비율 등 일부 부정적 이슈를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들이 1, 2단계 부정 응답을 하였으나, 중소 협력사 특성상 실질적인 Risk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협의를 통해 2단계 부정 응답을 긍정으로 조정, 지표 적합성을 부여한 경우도 있다.

적합성이 검증된 지표에 한하여 3단계 관련 Data 확보 및 제공 가능성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3단계 긍정 응답으로 측정성을 검증하였다.

위와 같이 93개 지표에 대한 6개 업체들의 3단계 응답 결과를 종합하여, 3개 이상 업체의 적합성과 측정성이 검증된 지표를 가용지표로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지표들에 대해 협력사들이 해당 사항, 계획 및 발생 가능성이 없거나(적합성 부족), 해당 사항이 있더라도 성과의 계량화 및 Data 확

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측정성 부족)으로 확인되었다. <표20>은 지표 Pool의 적합성과 측정성 검증을 통해 도출된 가용지표 현황이다. 93개 Pool 중 49개 지표가 가용지표로 선정되었다.

<표20> 가용지표 현황

분야	중대이슈	지표 Pool	적합성 부족	측정성 부족	가용지표
E	친환경	9	3	0	6
	기후변화	9	4	2	3
	자원순환	5	3	1	1
	생물다양성	2	2	0	0
	소계	25	12	3	10
S	인권	6	1	2	3
	노동	10	1	0	9
	다양성	2	2	0	0
	안전보건	13	1	1	11
	지역사회	4	0	2	2
	공급망관리	3	0	3	0
	고객	8	1	2	5
	소계	46	6	10	30
G	지배구조	13	7	0	6
	윤리	6	2	1	3
	정보보호	3	3	0	0
	소계	22	12	1	9
합계		93	30	14	49

친환경 이슈의 경우 9개 지표 Pool 중 6개의 가용 지표가 도출됐다. 적합성과 측정성이 검증된 지표로는 친환경 건설사업 참여, 친환경 원자재 구매, 환경 조직 운영 등이며, 공급망 내 환경평가 및 조치, 녹색인증 획득, 유해물질 배출 건수 및 유출량은 대다수 협력사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변화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의 3개 지표가 가용 지표로 선정되었다. 온실가스의 경우 환경 관련 규제에 따라 대다수 협력사에 측정 및 관리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 감축의 경우 협력사가 직접 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에 대한 소비 및 감축량은 측정 가능하나 현장을 비롯한 사무실 외 공간에서 직,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및 감축은 관리의 범

위를 벗어나므로 지표 적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후변화 전략 및 성과 관리, 신재생 에너지 사용 또는 개발 여부 등의 지표는 대형 건설사의 입장에서 초기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들로 중소 협력사의 관점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대응이 어려워 적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순환 이슈에 대한 지표 Pool은 5개로 이 중 폐기물 관리 적정성 한 건만 가용 지표로 선정되었다. 폐기물 관리 적정성은 법규 준수 또는 위반이라는 명확한 측정 지표가 있기 때문에 협력사 ESG 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폐기물 배출량 및 폐기물 재활용률과 같은 지표들은 건설 산업의 생산방식이 공사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폐기물의 분리, 선별, 보관 등 법적 배출 의무는 발주자가 지니므로 중소 협력사의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물 소비 및 용수 재활용 등의 지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생물다양성 이슈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 외에는 아직 생소한 분야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탄소중립 등에 연계한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중소 협력사가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적합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가용 지표가 도출되지 못했다.

인권 이슈에서는 아동노동/강제노동, 인권관련 임직원 교육, 차별건수 미 관련 시정조치 등 3개의 가용 지표가 도출됐다. 아동노동/강제노동의 경우 국내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미미하지만 해외 사업에 참여 중인 일부 협력사의 경우 현지 재하도급 업체 또는 인력 공급 업체들에 의해 반인권적 노동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히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된다. 인권관련 임직원 교육은 법정 의무에 따라 대다수 협력사가 이행하고 있으나 교육의 양과 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인권 위험관리 및 고충처리 채널 운영과 같은 지표는 필요한 일이지는 하나 전문 인력의 보유 및 전담 조직 운영 등에 대한 협력사의 실질적 여력을 감안할 때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노동 이슈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9개의 가용 지표가 도출되었다. 고용유지 및 복지증진 시설 투자, 근로조건 준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비율, 임금 체불 등의 지표가 이에 해당한다. ESG를 떠나 공급망 관리 전반에 있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 중 하나가 바로 노동 분야이다. 특히 근로조건 미준수, 노조 탄압, 임금 체불 등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끼치고 원도급사의 평판을 저해하기도 한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협력사 의존도가 높은 만큼 노동 이슈를 특히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다양성 이슈에 대한 ESG 평가 지표로는 임직원 내 여성비율, 성별 기본급 및 보상급 비율이 있다. 건설산업은 타 직종에 비해 남성 근로자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최근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국내 주요 종합건설사의 경우도 남성 근로자 비율이 90% 이상이다. 협력사의 경우는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하여 대다수의 협력사에 여성 임직원이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 시점 다양성 이슈를 ESG 평가에 포함시키기에는 적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와 다양성 존중 문화 확산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기업들은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중대 이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안전보건 이슈를 들 수 있다. 국내, 외 주요 건설기업 중대성 평가 결과 포함 횟수는 11회로 13회 언급된 기후변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각 기업별 중대성 순위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최상위 중대 이슈로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력사 ESG 평가에 있어서도 안전보건의 비중은 가장 높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안전보건 관련 13개의 지표 Pool 중 산업재해 발생, 안전경영 목표 및 방침, 안전관련 교육, 안전관리자 보유,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 11개의 가용 지표가 도출되었으므로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안전보건 최우선의 건설문화를 협력사를 포함한 Supply Chain 전체에 정착시켜야 한다.

지역사회 이슈에 대한 ESG 평가 지표 Pool은 4개로 이중 기부금, 취약계층 고용의 2개 지표에 대한 적합성과 측정성이 검증되었다. 나머지 지표인 사회공헌 정책,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은 인력과 자원 상의 한계로 대부분의 협력사들이 이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급망 관리 이슈의 경우 공급망 관리 전략, 공급망 관리 투명성, 공급망 위험 관리 등 3개 지표 Pool이 있지만 이는 대형 건설사에 있어 필수적인 평가 항목인 반면 중소 협력사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표들로 판단된다. 협력사들의 경우 공급망 관리보다는 인권 및 노동 이슈 평가 및 관리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 방안이 될 것이다.

고객 이슈에서는 8개 지표 Pool 중 5개 가용 지표가 도출되었다. 주요 가용 지표로는 품질인증, 업종별 품질관리 인증, 판매처 집중 및 신용도 등이 있다. 고객만족도 측정 및 고객 만족도 제고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지표는 중소 협력사 관점에서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같은 지표를 관리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성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지배구조 이슈의 지표 Pool은 13개로, 이 중 6개 가용 지표가 도출되었다. 주요 가용 지표는 최대주주 변경, 지배주주 지분율, 외부감사 여부, 사외이사 유무 등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0년 외부감사대상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의 4개 요건 중 2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중소협력사의 경우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으나, 회계 투명성 측면의 검토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사기구 구성, 비재무리스크에 대한 이사회 수준의 검토 여부 등의 지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 이슈에서는 6개 지표 Pool 중 절반인 3개 지표가 가용 지표로 선정됐다. 가용 지표는 반부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자금 유출비용,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거래 집중도 등이다. 중소 협력사의 규모나 경영여건 상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는 등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고, 경영 과정에서 자금 유출의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반부패 방지 정책, 반부패 발생시 내부절차 및 조치 등은 적합성과 측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보보호는 기업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협력사들의 경우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IT 시스템 의존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중요성

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보호 이슈 관련 ESG 평가 지표 Pool은 3개로 개인 정보보호 정책 수립, 정보 보안 정책 및 프로세스, 정보/사이버 보안 전략 및 지배구조 등이 있으나 협력사 관점에서 해당 사항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3.1.3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 지표

지금까지 DJSI, MSCI, GRI, SASB, KCGS가 제시한 ESG 평가 지표들을 살펴보고 주요 건설사들의 중대성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건설산업 중대 이슈를 도출, 중소 협력사 관점의 지표 적합성 및 측정성 검증 절차를 거쳐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와 같다.

<표 21> 건설산업 협력사 ESG 평가 지표

분야	중대 이슈	지표
E	친환경	• 친환경 건설사업 참여 • 친환경 원자재 구매 • 환경 조직운영 • 환경관련 임직원 교육 • 환경방침 수립 및 공개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법규 및 규정 위반 제재건수
	기후변화	• 온실가 배출 집약도 •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자원순환	• 폐기물 관리 적정성
S	인권	• 아동노동, 강제노동 • 인권관련 임직원 교육 • 차별건수 및 관련 시정조치
	노동	• 고용유지 및 복지증진 시설 투자 • 근로조건 준수(근로계약서/최저임금/근로시간)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복지수준 • 신규채용(고용증가율) 및 이직자 수 비율 • 임금채불 • 임직원 교육 투자 (1인당 교육비용) • 임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시간) •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비중
	안전보건	• 개인보호장비 지급 • 산업재해 발생 • 안전경영 목표 및 방침 • 안전관련 교육 • 안전관리자 보유 • 안전보건 조직 구축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안전보건관련 포상현황 • 안전시설 투자 • 중대재해 발생

	지역사회	• 현장별 안전점검 • 기부금 • 취약계층 고용
	고객	• KS 품질인증 • 업종별 품질관리 인증 • 제재현황 및 시국세 체납 • 판매처 집중 및 신용도 • 품질경영시스템
G	지배구조	• 리스크 파악 및 관리 절차 • 사외이사 비율(유무) • 외부감사 여부 (외감여부&감사의견) • 이사회 산업경력 (대표이사 동업계 경력) • 지배주주 지분율 • 최대주주 변경
	윤리	• 반부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벌금, 합의금) • 자금 유출비율 •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거래 집중도

3.4 협력사 ESG 평가 지표의 활용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국내 건설산업 중소 협력사의 ESG 성과 관리를 위한 주요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으나, 실제 적용에 앞서 각 기업별 ESG 중대 이슈의 차이, 협력사의 공종에 따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표 및 평가 비중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개별 기업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는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 등 대외 전문기관과 협업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사 관련 경영, 재무 정보를 보유한 신용평가사와 협업하여 P사의 우수협력사 47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P사는 TCO(Total Cost of Ownership) 관점에서 안전, 품질 등 프로젝트 수행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사 수행도와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보증금 경감, 입찰 참여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수업체 우대 제도를 13개 주요 공종의 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수협력사를 운영하는 13개 공종의 2021년(9월 말 기준) 계약금액 11,762억원 중 우수협력사가 4,390억원을 계약하여 37.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3개 주요 공종의 전체 협력사가 225개 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계약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 주요 13개 공종의 우수협력사 계약비중

구분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9월말 기준)	'21.9월 계약금액
우수협력사 계약비중	12%	37.3%	- 총 계약금액 : 11,762억원 - 우수협력사 : 4,390억원

* 출처 : P사 보고서

우수협력사와 일반협력사를 비교했을 때 부도 및 중도 포기 비율, 안전사고 등 문제 유발로 인한 제재 건수, 공사 수행도 평가 점수 등 협력사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우수협력사가 일반협력사 대비하여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3〉 부도 및 중도 포기 (2021. 1 ~2021. 9)

구분	우수협력사	일반협력사
업체 수	-	8
계약 건수	-	17

* 출처 : P사 보고서

〈표24〉 부정당 협력사 제재 현황(2021. 1 ~2021. 9)

구분	진행 중인 계약금액	총 제재건수		
			안전사고	기타
우수협력사(A)	19,139	9 (0.05%)	5	4
일반협력사(B)	43,034	64 (0.15%)	12	52
비율(=B/A)	2.2배	7.1배	2.4배	13배

* 기타 : 수행도평가 열위, 계약불이행, 입찰 무단 불참 등

〈표25〉 수행도 평가 현황(2020. 4 ~2021. 6)

구분	우수협력사 평균 (A)	일반업체 평균 (B)	차이 (A-B)
평가 점수	95.25	93.09	2.17

* 출처 : P사 보고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업체 대비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우수협력사 47개사를 대상으로 ESG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해 P사의 주거재 신용평가사와 협의를 통해 신용평가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평가항목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평가자료를 조합하여 평가항목과 가중치, 세부 측정지표를 실무적으로 조정하였다.

E, S, G 각 영역의 가중치를 설정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국내 주요 5개 건설사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표26>과 같이 각 사의 중대성 평가 결과에 포함된 1위에서 10위까지의 항목에 각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부여하고 E, S, G 영역별 총점을 산출한 결과 E 28%, S 55%, G 17%의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표26> 국내 주요 5개 건설사 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	점수	J사		A사		B사		P사		C사	
		중대성	영역	중대성	영역	중대성	영역	중대성	영역	중대성	영역
1	10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S	안전보건 관리 및 사고 예방	S	사업장 안전 사고 등 재해 예방	S	안전보건	S	사업장 현장 안전	S
2	9	기후변화 대응	E	신성장사업 육성	G	건설 폐기물 배출량 관리	E	제품책임	S	안정적 경영 성과 달성	G
3	8	준법경영 강화	G	고객만족 향상	S	친환경 기술/자재 도입	E	폐수 및 폐기물	E	협력회사 상호 협력	S
4	7	고객만족 활동 강화	S	경영성과와 경제적 가치 창출	G	인재 확보	S	임직원	S	신시장 및 신사업 개척	G
5	6	지역사회 기여, 사회문제 해결	S	친환경 기술 경쟁력 제고	E	사업장 지역 주민과의 갈등 예방	S	환경법규	E	친환경공법, 신재생에너지 기술	E
6	5	직접적 경제 성과 창출	G	제품 및 서비스 혁신	S	임직원 인권 침해 예방	S	친환경기술	E	임직원 역량 개발	S
7	4	노사문화 및 노동여건 개선	S	국내외 환경법규 준수	E	정부 정책/규제 대응, 법규 준수	G	기후변화	E		
8	3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투자	E	윤리, 준법경영 추진	G	공급망 내 사회/환경 이슈 관리	S	지역사회	S		
9	2	신성장 동력 확보	G	협력사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S	대기오염 물질 방출 관리	E	혁신기술	S		
10	1	다양성 존중	S	친환경 경영	E	신기술/신사업 경쟁력 강화	G	노동인권	S		

해당 가중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FGI에 참여한 최우수 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한 결과, E 영역에서 2등급 1개사, 3등급 1개사, 7등급 4개사로 평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ESG 종합등급도 하향평준화되어 평가 변별력이 상실됨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환경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대부분 원도급사가 수행함에 따라 협력사의 환경경영체계는 초보적인 단계인 반면, 협력사의 경우 중소기업 특성상 임금체불, 인권 등 노동 이슈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분야의 중요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환경 영역의 가중치를 축소하고 사회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 적합한 가중치를 도출하고자 <표27>과 같이 기존 협력사 수행도 평가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상의 주요 평가항목을 ESG 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환경 12%, 사회 68%, 지배구조 20%의 가중치를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환경과 사회 가중치를 일부 조정하여 환경 10%, 사회 70%, 지배구조 20%의 가중치를 종합 등급 판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표28>은 ESG 영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른 FGI 참여 6개 협력사 ESG 평가 결과이다.

<표27> 협력사 수행도 평가 모델 (ESG 항목 및 영역으로 치환)

평가항목		ESG 항목	ESG 영역	배점
공정	계획공정달성도	고객	S	8
	자재/장비/인력투입 지연에 따른공사지연	경제	G	6
	현장 상용근로자 비율	노동	S	6
품질	대외지적건수	고객	S	6
	부적합 사항(NCR) 발행 건수	고객	S	6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관리 상태	고객	S	2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정도	고객	S	2
	검사 및 시험계획에 대한 검사 결과 수준	고객	S	2
안전	협력사 경영층 참여 및 지원	안전	S	2
	협력사 안전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안전	S	2
	법정 안전보건교육 참여 실적	안전	S	2

	위험성평가	안전	S	2
	위험공종 작업계획서 작성수준	안전	S	2
	일일 안전보건 회의 소장 참석	안전	S	2
	작업반별 MOS TBM 실시상태	안전	S	2
	작업 투입 전 Hold-Point 이행 건수	안전	S	2
	8대 위험 불안전행동 지적건수	안전	S	8
	현장 불안전한 행동, 상태 지적건수 및 관리상태	안전	S	5
	근로자 건강관리 추적등 보건 관리 상태	안전	S	1
환경	작업전 근로자 환경교육 실시 정도	환경	E	2
	환경오염 예방 관리 수준	환경	E	2
	중점 환경 POINT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정도	환경	E	2
	환경 작업지시(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정도	환경	E	2
	협력업체소장/ 협력업체관리자의 환경의식 수준	환경	E	2
	현장 환경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협력도	환경	E	2
현장 관리	자재, 장비, 노임지불	노동	S	6
	시공 증빙기록 제출	경제	G	6
	협력업체 현장소장 평가	지배구조	G	8

〈표28〉 ESG 영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른 협력사 ESG 평가 결과

협력사	분야별 평가점수			종합점수 및 등급(분야별 가중치 적용)			
	E	S	G	28% : 55% : 17%		10%:70%:20%	
P4	23 (E7)	57.8 (S4)	79 (G2)	51.7	ESG5	58.6	ESG4
P9	32 (E7)	71.8 (S2)	74 (G2)	61.0	ESG3	68.3	ESG3
P20	67 (E3)	84.3 (S1)	86 (G1)	79.7	ESG2	82.9	ESG1
P26	33 (E7)	62.5 (S3)	73 (G2)	56.0	ESG4	61.7	ESG3
P27	40 (E7)	54.4 (S5)	66 (G3)	52.3	ESG5	55.3	ESG4
P30	79 (E2)	67.1 (S3)	66 (G3)	70.2	ESG3	68.1	ESG4

또한 협력사 ESG 평가 지표는 본 연구에서 도출했던 49개 지표 중 ‘차별 건수 및 시정조치’를 ‘아동노동/강제노동’과 하나의 지표로 통합하고, ‘인권 관련 임직원 교육’ 항목을 ‘의무교육 및 반부패, 비상대피 교육’ 항목에 포함하여 2개 항목을 줄이는 대신, S 부문에 ‘4대 보험 연체’를 추가하고, G 부문에 ‘사회적 평판도’와 ‘채무불이행’을 추가하여 3개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총 50개의 지표로 확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50개의 측정지표는 <표29>~<표31>과 같다.

각 항목별 배점은 신용평가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작성한 표준모형을 기반으로 했으며, 해당 이슈 발생 시 사회적 영향도, 민감도 등에 따른 중요도를 기준으로 조정하였다. 각 항목 중 문제발생 시 회사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은 필터링 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문제 발생 시에는 E,S,G 각 해당 분야 점수를 최하위 등급인 7등급으로 배점하도록 하였다.

<표29> E(환경) 분야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평가항목 (대)	평가항목 (중)	세부 측정지표	배점	측정 방법
환경정책	환경전략	환경 조직 운영	5	정량
		환경 교육 운영	10	정량
	환경경영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15	정량
		친환경 건설사업 참여	10	정량
		친환경 원자재 구매	10	정량
환경시스템	환경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10	정량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15	정량
		온실가스배출량/매출	15	정량
	환경관리	환경법규 위반	-10 (감점)	정량
		환경폐기물 관리 적정성	10	정량
합 계			100	

* 출처 : P사 보고서

〈표30〉 S(사회) 분야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평가항목 (대)	평가항목 (중)	세부 측정지표	배점	측정 방법
노동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비율	2	정량
		임금체불	필터링	정량
	고용조건	근로조건 준수 (근로계약서/최저임금/근로시간)	2	정량
		복지수준	2	정량
		고용유지/복지증진시설투자	2	정량
인권	고용평등	노동조합 보유	2	정량
		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 금지	2	정량
사회	사회공헌	취약계층 고용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2	정량
		기부금 지출	2	정량
		고용증가율	2	정량
윤리	윤리경영	4대 보험 연체	-10 (감점)	정량
		윤리경영 준수	4	정량
안전	안전경영	안전경영 목표 및 방침	5	정성
		안전관리 조직 운영	5	정량
		안전관리자 보유	10	정량
	안전관리	안전관리 교육	10	정량
		현장별 안전점검	10	정량
		개인보호장비 지급	3	정량
	안전투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KOSHA18001)	5	정량
		안전시설투자	5	정량
	안전성과	산업재해 발생 (재해율/발생건수)	10/ -10(감점) 필터링	정량
		중대재해 발생	-10 (감점)	정량
		안전보건관련 포상현황	5(가점)	정량
고객	지속가능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3	정량
		KS 품질인증	2	정량
		업종별 품질관리 인증 (HACCP, IATF16949, ISO22000)	3(가점)	정량

		제재현황 및 시국세 체납	-10(감점) 필터링	정량
		판매처 집중 및 신용도	5	정량
교육	교육관리	1인당 교육비용	3	정량
		의무교육 및 반부패, 비상대피 교육	2	정량
합 계			100	

* 출처 : P사 보고서

〈표31〉 G(지배구조) 분야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

평가항목 (대)	평가항목 (중)	세부 측정지표	배점	측정 방법
경영	경영안정성	지배주주 지분율	15	정량
		최대주주변경	15	정량
		대표이사 동업계 경력	10	정량
		사회적 평판도 (사법처리/생산위험/사건사고)	-10 (감점)	정량
		채무불이행 (상거래 채무/금융채무 연체)	필터링/ -3(감점)	정량
	회계투명성	외감 여부 & 감사의견	10	정량
		자금유출 비율	20	정량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거래 집중도	5	정량
	경영시스템	경영시스템 관리프로세스 구축 (위험평가, 피드백, 문서관리)	15	정량
		사외이사 유무	10	정량
합 계			100	

* 출처 : P사 보고서

위 지표별 평가 결과 ESG 등급 체계는 7단계로 구성된다.

〈표32〉 ESG 평가등급 체계

등급	등급 정의	평가 점수
1등급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매우 우수	80 이상
2등급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우수	70 이상 - 80 미만
3등급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양호	60 이상 - 70 미만
4등급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보통	55 이상 - 60 미만
5등급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다소 미흡	50 이상 - 55 미만
6등급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미흡	40 이상 - 50 미만
7등급	환경·사회·경영시스템 체계 및 성과가 매우 미흡	0 이상 - 40 미만

* 출처 : P사 보고서

P건설의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협력사 ESG 평가지표를 통한 시범평가 결과는 예상보다 저조하였다. 평가대상 47개사 중 종합평가에서 우수 및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는 1~5등급이 37개사로 78%를 차지하였으나, 우수협력사 임에도 ESG 평가가 미흡한 6~7등급 업체도 22%(10개사)를 차지하였다.

〈표33〉 우수협력사 ESG 종합평가 결과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합계
업체 수	3	3	12	11	8	5	5	47
비중	6%	6%	26%	23%	17%	11%	11%	100%

* 출처 : P사 보고서

E,S,G 각 부문별 평가 결과 평균 점수를 보면 G 부문이 62.9점, S 부문은 58.6점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E 부문은 37.0점으로 평가점수가 매우 저조하였으며, 6~7등급 업체가 79%를 차지하였다.

〈표34〉 우수협력사 ESG 평가 부문별 등급 분포

구분		1~2등급	3~5등급	6~7등급
환경 (E)	업체수	1	9	37
	비중	2%	19%	79%
사회 (S)	업체수	9	29	9
	비중	20%	62%	19%
경영 (G)	업체수	15	24	8
	비중	32%	51%	17%

* 출처 : P사 보고서

E 부문의 점수가 낮은 것은 건설에 필요한 직접적인 환경 인허가 및 관리, 인증 등의 업무가 원도급 회사가 대부분 수행함에 따라 환경경영을 위한 전략 수립과 환경조직 운영, 임직원 환경교육 등이 미흡하고, 온실가스 배출 관련 인식이 낮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원도급 건설사의 요구도 없었기 때문에 환경경영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S 부문은 1~5등급이 81%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지역사회 공헌, 임직원 교육 등은 다소 미흡하였으며, 직접 시공 불이행 및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도급 등으로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업체가 38%에 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도급 건설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투자 및 조직 구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G 부문에서는 최대주주 Ownership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고, 회계투명성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영전반의 위험을 통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내부 관리체계의 보완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내부자금유출과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 등의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고, 이는 협력사의 재무상태와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22%의 협력사가 6~7 등급을 받았고, 다양한 개선점들이 드러난 것으로 볼 때 협력사 ESG 평가를 일반업체들까지 확대할 경우 ESG 평가점수는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며, 매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급망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업데이트함으로써 평가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사 ESG 평가가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와 이를 통한 동반성장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등록제한, 퇴출 등의 제재 조치 뿐만 아니라 협력사 교육 및 육성 전략에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

협력사의 ESG 경영관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친환경·저탄소 건설 확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친환경공법 적용을 위한 기술과 비용 지원, 친환경 장비 및 자재 사용 등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Incentive 제도 운영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협력사 ESG 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별 취약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은 특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력사 ESG 평가는 원도급사에게는 건전한 협력사 육성과 운영으로 안전, 품질, 환경 관련 리스크가 낮아지고, 회계 투명성과 내부자금 유출 등 자금관리 체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부도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추가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력사 ESG 평가체계 구축은 원도급사와 협력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V. 결론

4.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친환경 경영(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경영(Social), 지배구조의 건전성(Governance) 등 경영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ESG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발 빠른 대응을 통해 ESG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업체의 대부분(98%)이 중소기업체이고, 후방연쇄 효과가 크며, 원가요소 중 협력사에서 조달하는 비율이 82%를 상회하는 등 하도급 의존성이 높아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중소협력사의 경우에는 아직 ESG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관리의 역량을 갖추지 못해 원도급사가 리더십을 가지고 체계를 갖추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는 협력사 ESG 평가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지표들의 특성과 공통적인 주요 평가 항목을 확인하였으며, 건설산업에 적합한 평가 항목 선별을 위하여 국내외 주요 건설기업들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중대 이슈에 맞는 기존 평가지표 Pool 93개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지표 적합성과 측정성을 검증, 최종 50개의 가용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시범 평가를 통해 지표의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4.2 연구 시사점

ESG는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산업 전반에 내재화되어 왔으며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이 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과 우려도 제기되나 최근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동참,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발효 등 국내 산업 규제 강화, 윤리적 소비 등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ESG는 거시적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시장 축소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코로나 19에 따른 해외 진출 제한 등의 영향으로 악화일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ESG 대응이라는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 받았다. 산업재해 위험, 미세먼지/소음/폐기물 등 환경 문제 유발 등의 리스크로 그간 건설산업은 ESG 리스크가 특히 높은 산업 분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ESG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적극 대응하면 건설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전환, 친환경/저탄소 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는 대형 건설사들의 노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 건설산업은 협력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사들의 변화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동반성장의 관점에서 함께 ESG 리스크 예방과 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건설산업에 특화된 협력사 ESG 평가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한 바람직한 Supply Chain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 ESG 평가 방법론은 글로벌 평가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지표를 산업 특성에 맞게 도출하여 활용한 사례로, 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Supply Chain 관리가 중요한 여러 산업의 협력사 ESG 평가와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로 DJSI, MSCI ESG Ratings, GRI Standards, SASB Standards, KCGS ESG 평가의 5개 지표를 분석하였다. 국내외 가장 권위있는 기관들이 제시한 지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

나,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ESG 평가 지표가 600여 종에 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표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보다 폭넓은 지표들을 분석에 포함시켜 협력사 ESG 평가에 활용할 지표 Pool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ESG 중대 이슈 선정을 위해 해외 5개사 및 국내 5개사의 중대성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으나, 중대성 분석 결과는 사회적 이슈 변화에 따라 상시 변화해 가며 기업의 규모나 특성, 단기적인 경영상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많은 기업들의 중대성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해당기업의 경영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중대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적 요구에 맞는 ESG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한편, 우수협력사의 회사 규모와 재무상태, 수행도 평가점수, 영업이익률 등과 ESG 평가등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협력사의 ESG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았고 원도급 회사 등이 ESG를 요구하는 경우도 없어 ESG 경영에 대한 대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향후 협력사가 ESG 경영 준비를 갖추고,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ESG 평가가 진행된다면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은 ESG 도입 초기단계로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감안해 측정지표 항목과 지표의 가중치, 배점을 설정하였는데, 협력사 ESG 역량이 갖추어지면 그에 적합한 항목과 가중치, 배점으로 업데이트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평가 수행에 있어, 목표의 적절성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합성과 측정성을 부여 받은 지표라 할지라도 피평가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성 가능성이 충분한 동시에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해야만 ESG 평가 본연의 목적이 내실 있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기업들을 평가함으로써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이를 분석하여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경훈. (2018).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고객이탈 고려 하에서의 선적통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원, 정무권. (2020).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지』, 49(5), 683.
- 고희경, 안동휘, 서용구. (2021). ESG 환경 경영: 블랙야크 스타일. 『상품학연구』, 39(3), 78.
- 권성식. (2019).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형 B-impact 모델 개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금융위원회. (2021).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서울: 금융위원회.
- 김기형. (2020). "공급사슬 리더십과 동반성장 정책이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정. (2015). "공급사슬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전략이 공급사슬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조. (2002). 공급사슬리더십이 SCM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과 정보연구』, 11, 6-9.
- 김양민, 박지현. (2021). ESG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재무성과: 실증연구 고찰과 향후 발전 방향. 『전략경영연구』, 24(2), 76-114.
- 김영석, 정병국. (2015). DJSI(DJSI: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Korea) 평가에 의한 우수기업 웹사이트 색채분석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3(1), 214.
- 김재욱, 김한수. (2019). 국내 건설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3), 54-63.
- 김현수. (2021). ESG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60, 66.

- 나경연, 최은정. (2017). 중소 건설업의 비중 변화 분석. 『중소 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 (32).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우건설. (2020,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서울: 대우건설
- 문경직, 박정호. (2009).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5(7), 113.
- 박경서. (2021). 지속가능한 ESG 경영과 책임투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월 세미나 자료집』,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13-37.
- 박기백. (2004).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지표개발. 『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37-40).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박선구, 홍성호. (2017). 건설업종별 고용창출효과 비교 분석. 『건설정책리뷰』, 2017(05), 32-35.
- 배창현, 김태동, 신세찬. (2021). 비재무적 측정지표를 활용한 연구동향 및 ESG 이슈.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30(2), 235-276.
- 백상기, 허희영. (2021). 항공운송산업의 CSR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9(2), 55-82.
-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1). 『Samjong INSIGHT』. 서울: 삼정KPMG
- 성호경, 이민호, 부제만. (2020). 중소기업의 공급사슬망 통합수준이 SCM 성과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43(3), 168-178.
- 심규범. (2009). 건설업의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정책 방향, 『월간 노동리뷰』, 2009(04), 42-44.
- 심상경. (20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제도의 실증분석”.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소영. (2018). "호텔의 지속가능경영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수현. (2021).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관련 국내 법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 - 21대 국회 상정법안을 소재로 -. 『경제법연구』, 20(2), 77.

- 안용한, 김수련, 권성준. (2018). 건설환경에서의 지속가능성의 정의와 필요성.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13(4), 75-79.
- 안태욱, 이희승, 이준서. (2021). 연관규칙 분석을 통한 ESG 우려사안 키워드 도출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30(1), 123-149.
- 윤영선, 박용석, 성유경. (2014). 건설산업의 부조리 사례 특성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건설이슈포커스』, 2014(03), 6-8.
- 이돈희, 이동현, 정경. (2017). 공급자-구매자 협력관계가 지속가능 SCM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2(4), 98-100.
- 이병옥. (2016). "지속가능보고서 발간기업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희, 이수열. (2014). 지속가능 공급사슬 관리가 관계자본 및 공급사의 지속가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3(2), 277-295.
- 이운선, 문혁, 이태식. (2021).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건설기업 ESG 활동 및 성과 사례.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2(2), 106-118.
- 이정기, 이재혁. (2020). 지속가능경영 연구의 현황 및 발전방향: ESG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략경영연구』, 23(2), 66-92.
- 이흥일. (2020). 『건설기업의 성공적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안』,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임우석, 정지현, 이학기. (2015). 균형성과표를 활용한 건설사업 관리의 핵심성과 지표 도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6(6), 22-23.
- 임병규, 김명희, 김준호. (2009). 공공기관의 균형성과표 관점간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국제청 성과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28(1), 159-178.
- 장윤제. (2021). ESG 평가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규제 방향. 『상사판례연구』, 34(3), 423-472.
- 정규석. (2011). I-O 시스템을 이용한 성과지표 개발 모델 및 BSC와의 통합 활용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2(4), 399-402.
- 정규석, 윤상운. (2012). SIPOC 개념을 활용한 성과지표 개발 모델. 『품질경영학회지』, 40(3), 394-404.

- 정규석. (2018). 핵심성과지표 개발 방법 비교연구. 한국품질경영학회, 『품질경영학회지』, 46(4), 863-876.
- 정영일. (2020). 『ESG 성과측정 및 보고관련 최근 트렌드와 국가 사례』. 서울: 한국회계학회.
- 차지이, 윤호근, 김미숙.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이용한 ESG 요소 정성적 분석. 『2021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1(06), 1753-1755.
- 천상은, 박희태. (2021). ESG 인적자원관리 평가지표 비교분석연구.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2021(08), 11.
- 최기호, 박청규, 최보람. (2015).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대한경영학회지』, 28(3), 961-980.
- 최은정. (2020). 건설환경변화와 중소 건설업 실태 분석. 『중소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17-26).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최은정. (2020). 건설업 이미지 현황 및 개선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20(12), 4-10.
- 최은정. (2021). 국내 건설업체의 코로나19 관련 대응 실태 및 경영 현안 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업체의 경영 현안 및 대응 과제』 (41-47). 서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최정혁. (2021). ESG 성과와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소유구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8(2), 92-110.
- 최철곤, 심정택. (2015). SCM특성이 공급사슬 파트너십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0(5), 81-91.
- 포스코건설. (2019, 2020). 기업시민보고서. 포항: 포스코건설
- 허가영. (2021). 패션 브랜드의 ESG 실천 사례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2(4), 3285.
- 현대건설. (2020,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서울: 현대건설
- 홍성호, 박선구. (2016).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문건설기업 혁신전략. 『건설정책리뷰』, 2016(07), 15.

- DL.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서울: DL
- GS건설. (2020, 2021). 통합보고서. 서울: GS건설
- KBCSD. (2015). How does Sustainable Korea 2030 work?. *Sustainable Korea 2030*, pp.107-112. Seoul: kbcSD.
- KOTRA. (2021).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Global Market Report』, 21(026), 16-17.
- Leem, W. (2019). *Effect of non-financial information on firm performance*.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86(1), 121-122.
- Shin, C.H. & Kim, J.E. (2008). *Current Affair Article: Status and Tasks of Sustainable Management*. KEF Compensation Quarterly, Korea Employers Federation (KEF), 16(3), 74-75.

2. 국외문헌

- ACS Group. (2020). Integrated Report of 2020. Madrid: ACS Group.
- CDL. (2020). Integrated Sustainability Report. Singapore: City Developments Limited.
- Claire Jolly. (2021). *Sustainable Finance and Space: The Case of Greening Infrastructure*. ESA Digital Workshop, OECD.
- Ferrovial. (2020). Integrated Annual Report. Madrid: Ferrovial.
- Freeman, R. E. (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Pitman Publishing.
-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New York Times Magazine.
- Hassini, E., Surti, C., and Searcy, C. (2012).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of Sustainable Supply Chains with a Focus on Metric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40(1), 69-82.재인용.

- Jeffrey Hales. (2021). *World Scientific Encyclopedia of Climate Change*. Singapore: World Scientific Publishing.
- Kaplan, Robert S. and Norton, David P. (1992).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71-79.재인용.
- Lambert, D., Cooper, C. and Pagh, J. (1998). *Supply Chain Management: Implementation Issues and Research Opport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Logistics Management, 9(20), 1-20.재인용.
- Ria, Anthony P. (1974). *Managing by objectives*. Northbrook: Scott, Foresman and Company.
- WCED. (1987). *Our Common Future-the Brundtland Report*.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UN.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SG evaluation model

– Focused on suppliers evalu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Han, Sung-Hee

Major in International Business

Dept. of International Trad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an ‘ESG management index’ that can be used for change management for construction industry partners by utilizing ESG, which has recently been receiving increasing interest in Korea and abroad, an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through the use of the index.

ESG stands for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which are non-financial factors of a company, and is being promoted to increase corporate value and sustainability. Recently, ESG has been recogniz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corporate management, and global leading companies are already actively utilizing ESG as an opportunity for new

growth engines through preemptive responses. For the practice of ESG management, they constitute a promotion system and focus 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indicators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ESG management is being implemented based on the ESG management indicators presented by major evaluation institutions and global initiatives, but it is being promoted mainly by global large companies, and the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SMEs is low. However, ESG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from a global supply chain perspective is also becoming essential, as Apple announced that it would achieve 100% carbon neutrality in its global manufacturing supply chain by 2030. Considering the high dependence on subcontract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valuate and manage ESG performance of suppliers from the perspective of a 'sustainable supply chain'.

In this study, a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on common issues that appear in major domestic and foreign ESG evaluation indicators and the materiality derived by major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ferred to the evaluation indicators used for supply chain management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 pool of 93 indicators suitable for change manage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as derived. And in order to make the derived index pool into an index that can be used for the ESG evaluation of suppliers from the perspective of suitability and measurability, a total of 50 ESG management indicators were presented through available data analysis and FGI, and were pilot-applied to 47 excellent suppliers.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78% of the 47 suppliers were graded 1–5, which can be regarded as excellent or good. However, even though the evaluation target was excellent suppliers, 6~7 grade companies

accounted for 22% (10 companies). As for the average score of each division of E, S, and G, 62.9 points for G and 58.6 points for S divisions were good, but E divisions scored 37.0 points, which was very low. In particular, in the E part, 79% of suppliers occupied grades 6–7, indicating that the environmental field is very weak.

In order to strengthen the ESG capacity of suppliers, education and consulting for ESG management and awareness improvement should be provided to suppliers. It should contribute to the spread of eco-friendly low-carbon construction by increasing facility investment and application of new construction methods. For this,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st support should be provided. Also, it is necessary to review support measures such as providing incentives for companies with excellent ESG management that use eco-friendly equipment and materials.

The management system through ESG evaluation of suppliers not only enhances the sustainability of suppliers, but also helps the management of the contractors. By fostering and operating sound business partners, safety, quality, and environment-related risks are lowered, and it is possible to monitor the financial management system such as accounting transparency and internal fund outflow, which can contribute to preventing construction interruptions and additional costs due to default. It will serve as a basis for mutual growth between the contractor and suppliers,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a strong industrial ecosystem.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 are more than 600 ESG evaluation indicators being used worldwide and that new indicators are continuously being created at this moment and existing indicators are being improved, it is necessary to include a wider range of indicators in the analysis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further expand the index pool to be used in partner ESG evaluation.

To select ESG material issu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utilized the materiality analysis results of 10 major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companies. The materiality analysis results are constantly changing according to changes in social issues, and there may b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ize, characteristics, and short-term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mpany.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continuously updated so that appropriate ESG responses can be made.

When conducting evaluations in the fut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goals should be considered. This is because, even for indicators that have been given suitability and measurability, the original purpose of ESG evaluation can be accomplished in a substantial way only when goals are challengeable and achievabl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ed compan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data by evaluating a number of companies and to continuously supplement the evaluation system by analyzing i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emptively developed the ESG evaluation index for suppli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ESG is being evaluated mainly by global leading companies. These management indicat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reating a sustainable construction industry ecosystem by improving the ESG management level of suppliers.

【Keywords】 ESG, sustainability, supply chain management, construction industry, business partners